

문화 서울

서울,
예술이 되다



3 SEOUL +

- 03 이달, 주목할 문화예술 소식
- 07 인포그래픽
문화예술 경험이 만드는 격차
- 40 예술적 도시 읽기
좋은 도시의 조건이 되는 문화
- 50 지금, 서울다움
초록, 건강의 색
Green, the Color of Health
- 58 로컬 리포트
새로운 실험에서 희망을 보다-중구문화재단 왕소영 사장

F FOCUS +

서울어텀페스타,
공연예술로
기대되는 계절

- 18 리포트
숫자로 보는 서울어텀페스타 2025~2026
- 20 인터뷰
당신을 위한 공연이, 서울에 흐릅니다
오정해 서울어텀페스타 공동추진위원장
- 24 프리뷰
서울의 가을, 예술로 물들다-서울어텀페스타 미리보기
Seoul in Autumn, Art Alive
A Preview of the Seoul Autumn Festa

A ARTS +

- 08 예술가의 진심
배우 전미도의 온전히 나를 태우는 무대
- 32 인사이트
기술이 예술을 깨울 때, 린츠에서 응답했다
언폴드엑스 17년, 발굴에서 진출까지
- 42 이슈 리포트
문화예술정책으로 돌아보는 2026년 상반기
- 54 예술인 아카이브
노제현
- 56 예술인 아카이브
이성직

C CULTURE +

- 14 이야기를 읽는 경제학의 눈
오즈의 마법사가 숨긴 화폐 경제의 민낯
- 37 페이퍼로그
오케스트라의 가장 깊은 중심-김보람 서울시립교향악단 악보전문위원
- 46 해외는 지금
한국어를 통해 바라본 세계, 제80회 아비뇽 페스티벌

발행인 송형중 편집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나혜린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번역 evener 인쇄·제책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E. monthly@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인스타그램 @monthly_sfac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6년 7월 31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S

SEOUL +

이달, 주목할 문화예술 소식



서울시민예술학교 가을 시즌

서울문화재단 대표 예술교육 프로그램인 서울시민예술학교의 가을 시즌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가을 시즌에는 '나의 세계, 예술이 되다'를 주제로 96개 프로그램을 통해 감각을 깨우고, 나를 표현하며, 서로를 연결하는 시민 중심의 예술 경험을 선보인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웅산·양천·강북·서초·은평에서 각각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sfac.or.kr/asa)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8월19일부터1차접수시작 | (웅산)02.3785.3199 (양천)02.2697.0026 (강북)02.2105.2312 (서초)02.3399.0725 (은평)02.2106.1300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파트너십 '오픈 노들'

한강, 소풍, 낭만과 사랑.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노들섬에 딱 한 스펙의 특별함을 더한다면? 로컬 브랜드의 감성부터 트렌디한 오브제까지 우리가 도시에서 사랑하는 멋진 것들을 노들섬으로 초대했다. 언제 들러도 영감과 위로가 가득한 노들섬에서 당신만의 특별한 일상을 만나보면 어떨까. 8월 4일부터 17일까지 노들라운지에서 열리는 전시《기록의 채집》을 비롯해, 노들서가에서 문구·커피 등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가 예정돼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nodeul_island)에 차례로 공개된다.

02.2105.2434



‘대-락쵸로’ 리브랜딩 캠페인 대학로에 가면, 공연으로 가득한 서울의 밤이 펼쳐진다. 8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제철연극’은 공연 전 쇼케이스로, 첫 무대로 창작극 〈극장은 달린다〉를 선보인다. 또 오후 10시에 열리는 공연 후 살롱형 프로그램 ‘애프터시어터’의 첫 무대는 한국대중음악상을 받은 전자음악가 키라라(KIRARA)가 서울연극센터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12월까지 계절별 주제에 맞춰 공연과 음악, 영화, 토크, 관객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하는 대학로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자. 8월부터12월까지 서울연극센터·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대학로극장 쿼드 등 02.743.9360

S

SEOUL +

이달, 주목할 문화예술 소식

청년예술 교류 프로그램 'SAPY WEEK 2026'

청년예술청에서 청년예술인의 창작 과정과 작업을 나누는 교류 프로그램이 열린다. 올해 SAPY WEEK는 '작업으로 만나, 질문으로 이어지는 일주일'을 주제로 완성된 결과물뿐 아니라 창작 과정과 실험, 고민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미니 쇼케이스 릴레이, 피칭, 청년예술인 프로필 및 포트폴리오 전시, 아티스트 토크, 역량강화 특강,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예술가가 서로의 작업을 발견하고 동료 예술인, 관객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8월 21일 | 청년예술청 | 02.362.9746

광복절 특별 기획 프로그램 <극장은 달린다!>

광복절을 맞아 서울문화재단이 선보이는 특별 프로그램 <극장은 달린다!>는 강제 이주의 역사 속에서 90여 년간 이어온 고려극장과 예인들의 여정을 담은 창작 초연 작품이다. 춘향전을 비롯한 우리 소리를 기반으로 조국을 잃은 비극 속에서도 연극을 통해 민족의 정신을 지켜내며 세월을 멈추지 않고 달려온 고려극장의 여정을 신명나는 난장으로 펼쳐낸다.

8월 13일과 14일 오후 7시 30분 | 대학로극장 퀴드 | 1577.0369



©백태영/대학로극장퀴드

신당창작아카데미

2026 Sindang Project Exhibition

다소

수다스러운

26.08.20

- 09.06

서울서 마장로 87

신당창작아카데미

SASS Gallery

이명희

이지수

신당 프로젝트 전시SPE

2026년 신당창작아카데미 입주작가 자체 기획전시가 차례로 열리고 있다. 세 번째 전시로 김승기·한우현 작가가 협력한 팀 'ㄱ과ㅎ'의 <0과 1 사이에서>가 8월 16일까지 서울중앙시장 지하 SASS갤러리를 채운다. 0과 1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모티프로 각자의 방식으로 재료를 해석하며, 정밀한 연산과 반복되는 손의 수행을 통해 단단한 물성을 유연한 움직임으로 확장했다. 이어 8월 20일부터 9월 6일까지는 이명희·이지수 작가가 협력한 팀 '폴꽃 수다'의 <다소 수다스러운> 전시가 진행된다. 나태주의 시 '폴꽃'에서 출발해, 한글의 구조와 공예의 조형 언어를 엮어 문장을 읽는 과정처럼 작품을 천천히 보고 머무르는 경험을 제안한다.

전시별 일정 상이 | SASS갤러리 | 02.2232.8834

KIADA

2026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2026 KOREA INTERNATIONAL ACCESSIBLE DANCE FESTIVAL

2026. 8.12. WED

- 8.16. SUN

제11회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아시아 포용무용의 현재와 세계 장애인무용의 흐름을 조명하는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가 올해 11회를 맞아 대학로에서 개막한다. '진화는 멈춤 없이, 확장은 더 멀리, 협력은 더 깊게'를 주제로, 10개국 예술가가 18편 작품을 선보인다.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02.309.7922

볼 작가, 겨울 무대 낭독공연 2026

매년 신춘문예로 등단한 작가들이 지속해서 희곡을 써나갈 수 있도록 창작 환경을 마련하고 새로운 창작희곡이 태어나는 과정을 지원하는 '볼 작가, 겨울 무대'가 신작을 독회 형식으로 선보인다. 이호영 작 '새벽 운동회', 김정민 작 '신도들', 박혜경 작 '프리다이빙', 이한주 작 '자유일인간' 등 9편이 닛새에 걸쳐 공연되며, 낭독공연 후에는 작가·연출가·드라마투르그가 함께하는 '작가와와 만남'이 진행된다.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02.3668.0007

Portrait of Georg Baselitz, 2024, Photo Martin Müller, 티타누스 로파크 제공

<게오르그 바젤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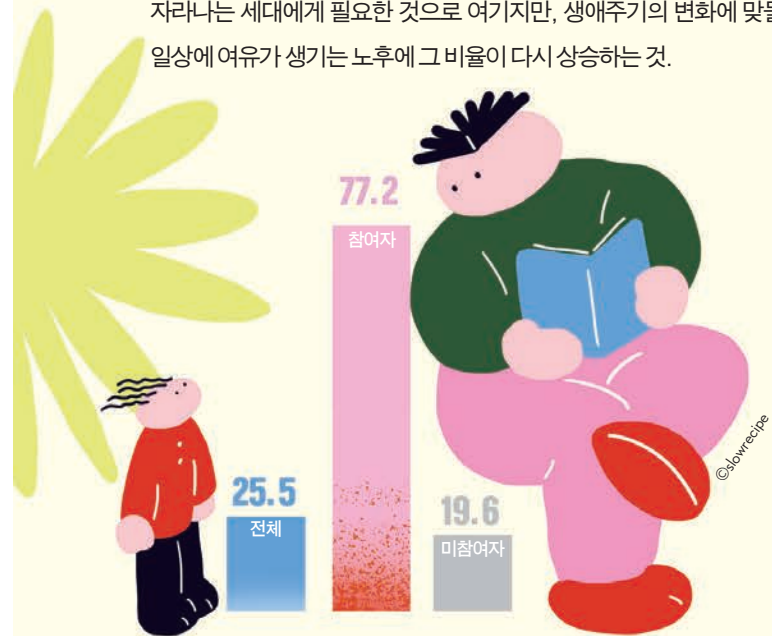
지난 4월 향년 88세로 타계한 게오르그 바젤리츠의 전시가 열린다. 20세기 후반 독일 미술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한 작가로, 1969년 이래 작품의 구도를 거꾸로 뒤집으며 주목받았다. 1960년대 초기작부터 2026년 최근작까지, 국내 미공개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시로, 작가가 평생 탐구한 인간 존재의 불안과 회화의 본질을 조망하도록 제안한다.

8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세화미술관 | 02.2002.7789

05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이 흔한 문장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도 적용된다면 어떨까? 문화예술교육, 시작이 어려울 뿐 일단 경험하고나면 지속성이 상당히 강하다. 지난해 발표된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국민 가운데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인구는 13.5%로, 남성(10.3%)보다는 여성(16.8%)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유아(3~6세)와 아동(7~12세)은 2명 중 1명꼴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고 있지만 청소년(13~18세) 시기에 접어들면서 그 비율이 급감(23.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율은 중년(35~49세) 시기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6.5%) 노년기로 가면서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면 한창 자라나는 세대에게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만, 생애주기의 변화에 맞물려 일상에 여유가 생기는 노후에 그 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것.



놀라운 것은, 문화예술교육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이들의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난다. 전체 인구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향률은 25.5%로 4명 중 1명 정도다. 문화예술교육 유경험자의 의향률은 77.2%, 미경험자의 의향률은 19.6%로 약 4배에 가까운 인식의 격차가 나타난다. 문화예술의 진입장벽을 넘어서기만 하면 그 안에서 발견한 즐거움이 또 다른 무한한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경험한 이들은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참여자의 향후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향률은 노년층(65~7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삶의 한 주기를 돌고난 후 은퇴와 함께 마주하게 된 여가 시간을 채워주는 문화예술의 활력을 경험했기 때문 아닐까. 결국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는 첫걸음이다. 각자가 자신의 문화예술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눈다면 그 진입장벽은 좀 더 쉽게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해당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5년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보고서 전문과 더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ARTS +

예술가의 진심

배우 전미도의

온전히 나를
태우는 무대

이태훈 조선일보기자 | 사진 제공 미디어랩시소

전미도 배우는 2011년 초 고췌 장민호^{1924~2012} 선생이 출연한 연극 〈3월의 눈〉을 보고 감전된 듯 충격을 받았다. “그 공연을 보기 전과 후로 무언가 바뀌었어요. 경지에 이른 연기, 너무 황홀했어요. 배우에게 매료되는 순간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에게 마지막 목표는 결국 무대였고, “여든 넘어서까지 무대에서 저런 연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장 선생의 분장실로 찾아가 당시 연습 중이던 대본에 사인을 받았다. 채호프의 〈갈매기〉다. 이 대본은 전미도의 보물이 됐다. 전미도가 8월 9일 서울 광진구 티켓링크 1975 씨어터에서 개막하는 〈갈매기〉무대에 배우를 꿈꾸는 여자 ‘니나’로 다시 선다. 그가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는 곳이자 고민을 함께 나눌 동료들이 있는 곳”이라 부르는 ‘극단 맨서어터’와 다시 함께한다. “극 중에 ‘창작하는 희열, 창작의 과정 그 자체가 주는 순수하고 고결한 행복’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15년 전 〈갈매기〉가 제게 그 희열을 알게 해줬어요. 연극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 준 작품이라 더 애착이 가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언제 봐도 새로운 깨달음을 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전미도와 서면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올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천만 배우’가 되셨어요.

저는 참 운이 좋은 배우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 덕분에 밝고 안정적인 현장에서 연기할 수 있었고, 상대 배우분들 덕분에 연기하는 즐거움도 새롭게 느꼈습니다. 많이 배웠고, 영화 작업에도 더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연극은 〈오슬로〉 이후 8년 만이네요.

원래 어떤 것이든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데 연극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셋별’이던 2011년과 달리, 이번엔 많은 관객이 ‘전미도의 니나’를 보러 올 텐데요.

부담보다 책임감을 더 느껴요. 더 성실히 임하고, 더 열심히 몰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품에 빠져들면 들수록, 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배우에겐 시간이 흐르며 달리 다가오는 작품이 있죠. 〈갈매기〉는 어떤가요?

니나의 내면이 더 깊게 읽히는 듯해요. 그저 단순히 유명한 작가를 따라 모스크바로 떠난, 배우를 꿈꾸는 천진난만한 시골 소녀가 아니라,

꿈을 향한 니나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그런 꿈을 꾸게 된 배경과 막아선 장애물,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을 느끼게 된 순간들이 느껴져요. 더 깊은 욕망이 보이고, 더 다양한 감정들이 읽히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나이가 들고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이겠죠. 어떻게 해석해서 표현할지 연출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전미도와 지금의 전미도 중 누가 니나와 더 닮았을까요?

반반 섞인 것 같습니다. 1~3막의 니나는 15년 전 저와 닮아 있고, 4막은 지금과 더 닮았어요. 다행히 저는 니나보다는 조금 더 유명한 배우가 되었지만, 15년 동안 배우로서 고민하고 겪어온 일들이 조금이나마 4막의 니나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프리고린의 대사에도 있지만, 유명해진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니까요. 15년 전의 저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진정 원하는 삶을 사는가’ 질문하며

니나는 인생의 패배자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성장 중인 예술가일까요?

니나마져 자신의 삶을 미화하는 패배자로 해석된다면 채호프는 왜 이 예술가들을 소재로 글을 썼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요? 시간이 흘러 4막에 가서도 많은 인물이 여전히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니나만이 시련을 통해 변화를 맞이하죠. 그녀가 겪어낸 삶이 그녀를 진정한 배우가 되도록 해줍니다. 그녀의 변화는 트레פל레프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나는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배우로서 니나처럼 ‘그래도 이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은 순간이 있었을까요?

매번이죠. 매번. 자신의 연기에 만족하는 배우가 있을까요? 때로 찬사를 보내는 관객 덕분에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잠깐이고, 늘 부족한 자신을 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또 도전해보고 싶고, 마주하고 싶은 게 배우라는 일 같습니다.

니나의 유명한 대사 “나는 갈매기예요”를 어떻게 보여줄지 두근두근합니다.

니나에게 ‘갈매기’의 대척점에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배우’일 겁니다. 스스로를 갈매기라고 자책하는 그 마음을 배우라는 희망으로



이겨내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갈매기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느낌을 더 주는 것 같

았어요. 후회와 실패, 파멸, 죄책감, 수치심, 비참함...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생각돼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라 해석했어요.

무대 위에서 발화하는 “나는 갈매기예요”는 또 그때마다 달라지겠지요?

한가지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나는 갈매기예요”라는 대사를 여러 번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때론 호수를 떠나지 못하고 댐도는 갈매기가 될 수도 있고, 총에 맞아 죽는 갈매기일 수도 있고, 비상하는 갈매기, 박제된 갈매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니나만이 알겠지요. 그리고 보는 관객들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 대사인 것 같아요.

이번 무대에서 본인만의 해석을 담아 관객의 마음에 다가가기를 바라는 ‘니나’의 대사와 장면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니나는 20대를 대변하는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가끔 특강 같은 자리에 가면 청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인상을 받은 했습니다. 니나 역시 자신의 재능에 대해 확신이 없고, 안정적인 생활을 떠나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죠.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이 일을 열망하고 있는지 깨달으면서 결국은 한 발을 내딛게 됩니다. 원하던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허상에 불과

2018년 손상규 배우와 호흡을 맞춘
〈오슬로〉(연출 이성열) 무대 ©국립극단

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죠. 똑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자신의 영혼

과 마음을 마주하게 되고, 비로소 진정한 배우가 됐다고 고백하죠. 저는 이번 무대의 니나를 통해 관객이 각자 가지고 있는, 두렵지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열정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실패라는 것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끝이 아닌 오히려 도약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2막 마지막 니나의 독백과 4막에서의 독백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연결지어 봐주시면 좋겠어요.

니나는 정말 갈매기였을까요?

니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갈매기죠. 호수를 떠나지 못하고 댐돌며 사는 갈매기처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때론 실패와 좌절을 겪지만 다시 희망으로 비상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갈매기 아닐까요.

백년도 더 된 작가인데, 채호프는 왜 여전히 동시대적으로 느껴질까요?

내 이야기이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며, 내 친구의 이야기이기 때문 아닐까요? 누군가를 몰래 사랑하는 절절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공하고 싶은 욕망,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재능,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으려는 처절한 몸부림, 내 뜻대로 살아보지 못한 후회, 시련으로 더욱 단단해진 내면. 이런 것들은 1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겠지요.



여전히 체호프가 낯선 관객도 있을 텐데요.

체호프의 극을 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을 읽어내지 못하거나 담아내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호프 극의 인물들은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면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또 웃고 울고 행복해합니다. 그것이 일어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공통된 모습이죠. 체호프는 그저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갈매기>는 세대별로 겪는 아픔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여러 인물을 통해서 나는 어떤 역할과 맞닿아 있는지, 혹은 어떤 인물에 가장 공감이 가는지, 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지 연결지어 보면 가장 재밌을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갈매기>는 체호프 작품 중에서도 명확하게 예술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체호프는 모든 인물을 사랑의 끝림으로 연결해놓고,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곁에 예술을 두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게 만드는 것도 같고요. 물질로 이뤄진 외부 세계와 내면을 이루는 영혼, 두 세계 사이의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합니다. 특히 예술가는 그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갈매기>는 우리에게 예술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혹은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이 그저 물질세계의 노예로서 하는 것인지, 한 영혼이라도 변화하게 만드는 진정한 예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문하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웠던 사람들과 뜨겁게 협업하는 행복

김정 연출가와는 첫 작업이죠?

전부터 김정 연출님이 궁금해서 여러 편을 봤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경기도극단에서 한 <죽음들>²⁰²³과 국립극단에서 했던 <이 불안한 집>²⁰²³을 들 수 있겠네요. 볼 때마다 신선하고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한시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연출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작업하고 싶었는데 이번 계기로 함께하게 돼 너무나도 기쁩니다. 드디어 만난 연출님은, 뭐랄까요. 연극에 미친 사람? 하하하. 너무나 열정적이고, 누구보다 깊이 고민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자 연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시도 배우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사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연출님과 함께하는 작업이 너무 즐겁습니다. 행복하고요.

나나와 프레뵐레프·프리고린의 합이 참 중요할 텐데요. 임철수·이동하 배우와의 호흡은 어떤가요?

임철수 배우는 어릴 적에 무대에 함께 선 경험이 있어요. 20년 가까이 우정을 나누고 있는 동료입니다. 항상 같은 무대에서 연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드디어 파트너로 만나게 돼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그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로 연기에 임해왔는지를 이번 연습을 통해서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서 작업할 때도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에 묘한 감동이 일더라고요. 이동하 배우는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요. 이토록 겸손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하는 배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반하게 됐어요. 두 파트너가 너무나도 훌륭해서 저 역시 많은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실이 정말 뜨겁습니다.

연극을 하지 않을 때 연극 무대를 생각하면, 뭐가 가장 그리웠나요?

협업한다는 것을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장르가 연극이 아닌가요 싶습니다. 연극은 작품과 인물을 만들어낼 때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작업입니다. 이번 작업이 그래서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연습이 끝나고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술 한잔을 기울입니다. 끊임없이 작품에 대해, 또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만들어가는 상대를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그 마음은 결국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는 욕망인 것 같아요. 서로 부대끼고 싶은 마음이지요.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연극하는 사람들이요.

<갈매기>는 결국 ‘예술가는 왜 계속 예술을 하는가’를 묻는 작품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 전미도는 지금 왜 계속 연기를 하고 있나요?

예술... 사실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거창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나만의 시선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해내고 또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이 예술이라면 저도 예술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해도 해도 완성을 향해 가는 지름길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겹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겠지요.

배우 전미도, 인간 전미도에게 연극, 그리고 연극 무대란?

기분을 잊지 않게 하는 작업.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 온전히 나를 태우는 행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즈의 마법사가 숨긴 화폐 경제의 민낯

조원경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캔자스의 회색 들판에서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오즈의 나라로 날아간 도로시.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걸어야 했던 ‘노란 벽돌 길’은 화려한 모험의 통로처럼 보이지만, 그 길 위에는 현대 경제를 관통하는 거대한 상징과 질문이 깔려 있다. 어른이 되어 다시 읽는 오즈의 나라는 마법이 지배하는 환상이 아니라, 가치와 실체의 괴리 속에서 방황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축소판이다. 화려한 금빛의 노란 벽돌 길을 따라 쉽지가 않지만, 정작 우리가 좇는 번영이 실체가 있는 풍요인지 아니면 집단의 믿음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영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결핍이라는 이름의 착시 현상
경제사학자들은 『오즈의 마법사』를 1890년대 미국의 금본위제와 은본위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우화로 해

석한다. 도로시가 걷는 ‘노란 벽돌 길’은 금본위제를 상징하며, 그녀가 신은 ‘은 구두’(원작에서는 빨간 구두가 아닌 은 구두다)는 은화 주조를 통한 화폐 공급 확대를 지지했던 농민의 열망을 담고 있다. 현실의 우리도 도로시처럼 노란 벽돌 길을 걷는다. 부와 성공이라는 금빛 이정표를 따라 쉽지가 않아 발을 내딛지만, 정작 우리가 딛고 있는 그 길이 실물 경제의 튼튼한 토대인지,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신용의 가공물인지는 확인하려 들지 않는다. 자산 가격이 치솟을 때 우리는 그 상승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 아래 노란 벽돌 위를 전력 질주한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구원자 오즈가 아니라 화폐라는 기호가 만들어낸 거대한 신기루일지 모른다. 실물이라는 단단한 닻을 잃어버린 채 오직 누군가의 신용과 약속 위에 세워진 경제 시스템은, 믿음이라는 바람이 잰아드는 순간 언제든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 있는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도로시의 여정에 동행한 세 친구(늑이 없는 허수아비, 심장이 없는 양철 나무꾼, 용기가 없는 겁쟁이 사자)는 현대 경제 주체들이 겪는 심리적 결핍과 리스크 관리의 부재를 상징한다. 허수아비는 지능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사실은 여정 내내 가장 명석한 대안을 제시한다. 심장이 없다는 양철 나무꾼은 누구보다 작은 생명에도 눈물

을 흘리며, 용기가 없다는 사자는 위기의 순간마다 친구들을 위해 앞장선다. 이들의 결핍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낸 심리적 프레임에 갇힌 결과였다. 경제 활동에서 가장 위험한 리스크는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 스스로 자산 가치와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인식의 오류’에서 발생한다. 허수아비처럼 정보가 부족하다고 믿어 시장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사자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투자 결정을 미루다 기회비용을 날리는 행위는 모두 내면의 결핍이 만들어낸 비합리적 선택이다. 오즈의 마법사가 그들에게 준 것은 뇌나 심장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있던 가치를 확인시켜준 인증서와 훈장뿐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객관적인 수치보다 주관적인 믿음과 자신감이라는 ‘심리의 경제학’이기 때문이다. 차가운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공포와 탐욕이라는 감정이다. 이 보이지 않는 파동이 때로는 멸절한 자산 가치를 폭락시키기도 하고 실체 없는 거품에 생명력을 불어넣기도 하는 시장의 진정한 지배자로 군림한다.

에메랄드빛 안경을 벗고 노란 벽돌 길을 내려오며
마침내 도착한 에메랄드 시티에서 도로시 일행이 마주한 오즈의 정체는 거대한 괴물이 아니라 커튼 뒤에서 기계를 조작하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오즈는 마법이 아니라 ‘속임수’로 도시를 통치하고 있었다. 도시의 모든 사람이 에메랄드빛 안경을 써야만 했던 이유는 사실 도시가 에메랄드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경을 벗는 순간, 화려한 도시의 실체는 평범한 백색 건물에 불과했다. 이는 현대 금융 시스템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우리는 중앙은행의 정책이나 복잡한 금융 알고리즘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마법이라 믿지만, 실상은 인간이 만든 제도적 장치와 신용이라는 가느다란 끈에 의지하고 있다. 우리가 누리는 자산의 화려한 색채는 어쩌면 시장이 강제로 씌운 초록색 안경을 통해 본 착시일지도 모른다. 시스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즉 커튼이 걷히는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가 닥치면 에메랄드 시티의 화려함은 한순간에 바래버린다. 과도한 부채로 쌓아 올린 자산 가격의 거품이 한계점에 다다라 일시에 붕괴하며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이 파국의 시점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던 시장의 견고함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외줄 타기였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권위라는 커튼 뒤에 숨어 시장을 조종하는 마법사가 사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불안한 인간이라는 점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구원이 아닌 자신의 발에 신겨진 ‘은 구두’의 힘을 보게 된다. 도로시가 그토록 찾아 헤맨, 집으로 돌아갈 방법은 처음부터 그녀의 발에 있었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열쇠 역시 외부의 강력한 규제나 신비로운 비책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와 자립적인 판단력에 있다.

『오즈의 마법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경제적 교훈은 명확하다. 우리가 걷는 길이 아



무리 황금빛으로 빛날지라도, 그 길의 목적지가 커튼 뒤의 허상이라면 과감히 안경을 벗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뇌와 심장, 용기는 누군가에게 하사받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증명해내는 실천적 자산이다. 오늘의 우리도 수많은 오즈를 만난다. 절대 수익을 보장한다는 전문가, 시장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정책 입안자, 미래를 예언한다는 인공지능까지. 하지만 그들의 커튼 뒤를 응시하라. 그곳에 있는 것은 마법이 아니라 기계를 돌리는 인간의 불안과 욕망이다. 도로시가 은 구두를 세 번 부딪혀 캔자스로 돌아갔듯,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화려한 에메랄드 시티의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삶의 현장과 정직한 생산 가치에 있다. 노란 벽돌 길을 걷되 그 길에 매몰되지 않는 것, 마법사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변동성이 지배하는 현대 경제라는 회오리바람 속에서 우리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줄 진정한 경제학적 지혜가 될 것이다.

서울어텀페스타, 공연예술로 기대되는 계절



예술가에게는 다음 무대를, 관객에게는 공연을 발견하는 가을을,
도시에는 공연예술로 기억되는 계절을.
서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공연과 축제를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73일간 이어주는 서울어텀페스타,
개막을 앞두고 분주한 현장을 미리 만나봤다.

숫자로 보는 서울어텀페스타 2025~2026

추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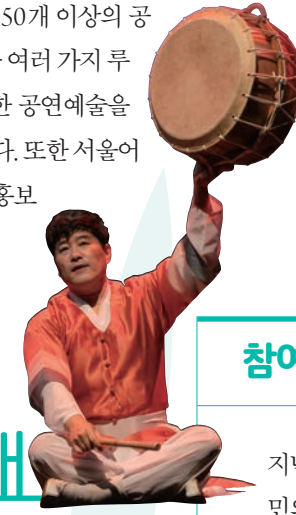
단순히 공공이 주도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예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나아가 민간과 공공의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어텀페스타는 민간-공공 협의체로 운영된다. 올해는 국악인 오정혜와 서울문화재단 송형중 대표이사가 각각 민간과 공공 부문 추진위원장으로 위촉돼 파트너십을 이룬다.



참여사업수

지난 서울어텀페스타는 서울 전역을 잇는 116개의 공연과 축제를 선보였다. 서울을 대표하는 다양한 축제는 물론, 청년예술가의 공연까지 민간 영역에서 74개, 공공 영역에서 42개 사업이 함께해 크고 작은 예술의 모양새를 아우르는 현장이었다. 올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50개 이상의 공연과 축제가 참여한다. 공모뿐만 아니라 협력 등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공연예술을 발굴하며, 추진위원회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서울어텀페스타에 함께하는 모두에게 공연별 맞춤형 홍보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25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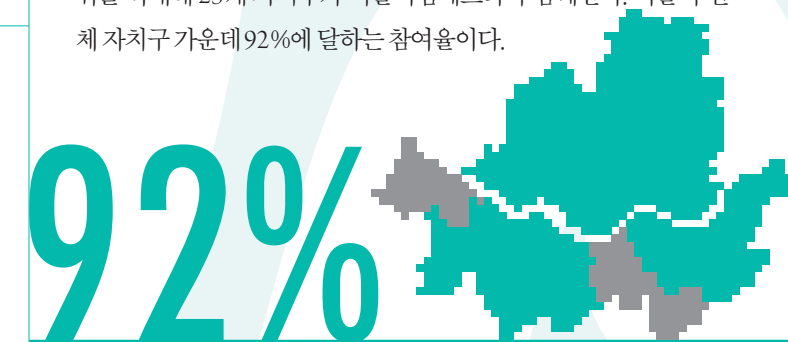
총 공연 횟수

운영 기간을 늘리고, 참여 사업을 더 모으고, 공연 횟수도 당연히 늘어날 터. 길어진 기간만큼, 많아진 공연과 축제만큼, 함께하는 예술가만큼, 지난해 1,118회 공연을 넘어서 올해는 2천 회가 넘는 공연이 시민을 반갑게 맞이한다.

1,118회

참여자치구

지난해 서울어텀페스타는 두 달여 기간 9개 자치구가 함께하며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예술을 만날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 이 범위를 확대해 23개 자치구가 서울어텀페스타와 함께한다. 서울시 전체 자치구 가운데 92%에 달하는 참여율이다.



브랜드 인지도

52%

‘편fun 서울’을 위한 가을 대표 축제로 부상하고자 하는 서울어텀페스타. 첫해 성과가 놀랍다. 지난해 브랜드 인지도 52%를 기록한 서울어텀페스타는 올해 서울시 사계절 축제에 포함되며 한 단계 더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서울어텀페스타와 만나고, 서울의 가을을 함께 즐길 순간이 더욱 기대된다.

운영기간



지난해 처음 시작해 10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40일간 서울 전역의 공연예술을 통합한 서울어텀페스타가 올해는 시민과 좀 더 일찍 만난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73일간 서울의 가을을 좀 더 오래 만끽할 수 있게 됐다. 더 많은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갈 가을에 기대가 모이는 이유.

전체 관람객 수

2025 서울어텀페스타는 개막 행사에서 1만 명 넘는 시민을 만났고, 1,117회에 걸친 참여 사업을 통해 52만여 명이 예술과 마주하는 풍경을 마주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약 40% 증가한 74만 명 시민이 서울어텀페스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올해 약 1만 5천 명 예술가가 서울어텀페스타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펼칠 것이다.

740,000명

국제 교류 도시

서울만 아니라 해외로 뻗어나가는, 나아가 서울과 세계의 공연 예술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서울어텀페스타의 국제 교류 성과도 놀랍다. 지난해 10개 도시와 국제 교류 사업을 펼친 데 이어, 올해는 25개 도시와 다양한 사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당신을 위한 공연이, 서울에 흐릅니다

오정해 서울어텀페스타 공동추진위원장

송현민 음악평론가·월간객석 편집장 | 사진 Studio Kenn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73일간 서울 전역의 공연장과 한강, 대학로, 자치구 문화공간 등에서 민간과 공공이 마련한 다양한 공연예술과 축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서울어텀페스타의 출발점은 명확하다. 좋은 공연이 서울 곳곳에서 열리고 있지만, 서로 흩어져 있어 시민이 한눈에 파악하고 찾아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 그래서 축제는 그 공연들을 하나로 잇고, 예술가에게는 더 많은 관객을 만나는 기회를, 시민에게는 공연을 발견하는 가을을, 서울에는 공연예술로 기억되는 계절을 만들고자 한다.

지난해 최태지 공동추진위원장(전 국립발레단장)에 이어 올해 축제에는 오정해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판소리와 영화, 방송과 교육 현장을 오가며 대중과 전통예술 사이의 거리를 좁혀온 예술가다. 그러나 그는 '위원장'이라는 호칭보다 "함께 무대에 서는 사람, 함께 관객석에 앉고 싶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에서 만난 오 위원장에게 서울의 가을, 한강, 공연예술, 그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축제를 즐기는 방법에 관해 물었다.

공연을 알리고,
예술가와 축제를 잇는다
공동추진위원장을 제안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
나요?

처음에는 솔직히 어떤 사업인지 잘 몰랐습니다. 제안을 받은 뒤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공연을 한데 모아 시민에게 알리는 축제라는 점이 반갑고, 제가 이 안에서 할 역할이 있다는 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영화 <서편제>로 대중에게 우리 소리의 깊이를 알렸고, 이후 영화와 방송, 교육 현장을 오가며 전통예술과 관객 사이의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그런 경험이 이번 축제에는 어떤 기운으로 스며들 수 있을까요?

일부러 여러 길을 찾아 나선 것은 아니었지만, 생각해 보면 모두 재미있는 길이었습니다. 낯선 장르를 만날 때는 설렘이 있었고, 생소함 속에서 신나는 순간을 발견하기도 했죠. 이 축제를 통해 관객들도 공연을 그런 마음으로 만났으면 합니다. 어떤 작품을 볼지, 어떤 장르를 접할지 고민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술가가 무대에서 온몸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순간에는 장르와 상관 없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시민에게 "한번 와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025년 처음 열린 서울어텀페스타는 서울국제음악제·서울세계무용축제·서울오페라페스티벌·서울거리예술축제·서울아리랑축제·대한민국국악관현악축제 등 굵직한 축제부터 대학로와 자치구의 연극·무용·국악·어린이 공연까지 총 116개 공연과 축제를 하나로 엮었습니다. 말하자면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던 가을 공연예술 지도를 한 장으로 펼쳐 보인 셈이었죠. 여러 공연과 축제를 하나의 장으로 엮는 일이 왜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예술가로 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좋은 무대가 단 한 번 올라간 뒤 그 무대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채 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진 예술가들이나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온 원로 예술가들의 무대는 스스로를 알릴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공연들을 한 장의 지도처럼 보여주는 일은 관객에게도, 예술가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축제는 관객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단체들이 서로의 무대를 보고, 축제와 축제가 만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협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협업'을 말하지만, 누군가 중간에서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예술가들이 서로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어템페스타가 그런 만남의 장이 된다면, 단순히 공연을 모아 놓은 축제를 넘어 예술 현장의 힘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가와 단체들에 이 축제가 어떤 힘이 되기를 바라나요?

무엇보다 관객과 만나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축제는 예술가들이 관객의 얼굴과 표정을 직접 마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공연이 좋았다"는 관람 후기도 예술가에게 큰 힘이 되지만, 무대 위에서 마주하는 관객의 표정이야말로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축제 전후 홍보 과정에서도 공연을 즐기는 관객의 표정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널리 퍼지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40일이던 축제 기간이 올해 73일로 연장되고, 참여 공연·축제도 116개에서 200개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공연 관람이 처음이거나 공연장을 낯설게 느끼는 관객에게는 어떻게 권하고 싶은가요?

73일이라는 시간을 "이 많은 것을 다 봐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편한 날, 편한 장소에서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이 좋다"고 느낄 때, 그 순간에 내가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관광객도 서울어템페스타를 그렇게 만났으면 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가을 산책하듯 가볍게 나서 공

연 한 편을 만나고, 그 시간이 오늘 하루의 작은 즐거움으로 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73일간 이어지는 축제는 9월 18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개막 행사로 시작합니다. 한강은 이번 축제에서 상징적이고 남다른 공연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위원장님에게 한강은 어떤 장소인가요?

저는 목포가 고향이고, 서울은 꿈을 위해 올라온 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거닐 때마다 목포 앞바다로 흘러드는 영산강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강은 저마다 이름은 달라도 끊임없이 흐른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도 서울에서 시작되지만, 축제에서 만난 예술과 사람들이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으로, 세계로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많은 해외 관광객이 찾는 도시입니다. 특히 가을의 서울은 정말 아름다운데요. 서울어템페스타를 통해 해외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서울의 얼굴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마련한 마당이지만, 그곳에 우리끼리만 모여서 좋다고 하면 안 되죠. 타지 사람들의 감동이 더해질 때 축제는 더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많습니다. 광화문의 해치상도 있고, 드라마에서 본 곳을 만날 수 있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서울어템페스타에도 외국인이 한눈에 "서울의 축제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상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K-팝과 드라마의 서울도 좋지만, 전통과 장인정신, 공연예술이 함께 살아 있는 서울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서울어템페스타를 통해 해외 관객에게도 '공연예술 도시 서울'의 얼굴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무대 위 공연뿐 아니라 공연장 안팎에서 만나는 한국의 문화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국가무형유산기능협회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국가무형유산을 전승하는 장인들이 계시는데, 작품 하나에 몇 년을 쏟고,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작품 제작에 몰두하시기도 합니다. 우

리는 그 작품들을 보고 "아름답다", "멋있다"고만 하며 지나칠 때가 많지만, 사실 만드는 과정을 알면 감동은 달라집니다. 공연장 로비나 축제 공간 한편에서 갓이나 함축선이 어떤 손길을 거치는지 영상 기록물과 전시를 만날 수 있다면, 시민과 외국인 모두 서울과 한국의 문화를 훨씬 깊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올가을 서울어템페스타를 기다리는 시민에게 어떤 말로 초대하고 싶으신가요?

올가을에는 익숙한 공연뿐 아니라, 평소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낯선 무대도 한번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생각보다 오래 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

리고 그 시간이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면 그것이 서울어템페스타가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어템페스타는 다양한 예술 현장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의체를 이뤄 운영된다. 공공 분야에서는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자치구 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기관이 참여하며, 민간 분야에서는 공연예술 분야 현장 전문가와 단체의 대표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공동추진위원장으로 국악인 오정해(민간)와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형중(공공)이 위촉됐다.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홍보위원회를 비롯해 민간 참여사업 대표자가 모인 참여사업단 등 추진위원회는 사업 기간 중에는 물론 연말까지 각종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되다 *Seoul in Autumn, Art Alive*

서울어텀페스타 미리보기 A Preview of the Seoul Autumn Festa

이하늘 서울문화재단 축제정책팀
Haneul Lee Festival Policy & Branding Team, SFAC

2025 서울어텀페스타 개막 현장
An opening performance of the Seoul Autumn Festa 2025





한국장단음악축제 '장단유희'
Jangdanuhee: Korea Rhythm & Music Festival

enriching Seoul's autumn with new depth and vitality. This autumn, Seoul transcends being a city where art is merely "seen" and becomes a vast theater where art is "experienced" with all the senses. Running for 73 days from September 18 to November 29, 2026, the Seoul Autumn Festa is a performing arts platform that connects performances and festivals held across Seoul during the autumn season. Theater, dance, music, traditional arts, and street performances are joined by international forums, arts educa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s, weaving the entire city into one festival centered on the performing arts. Launched last year, the Seoul Autumn Festa began not as a government-led event but as a public-private collaborative festival developed together with the performing arts community. This year, co-chaired by traditional musician and actress Jeonghae Oh and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President Hyeongjong Song, the festival brings together planning, advisory, and publicity committees along with arts organizations to shape its direction. Their shared goal is to establish the Seoul Autumn Festa as the city's signature performing arts season.

A 73-Day Journey Beginning at the Han River

The festival's opening scene unfolds on the Han River. On September 18, an opening performance at Ttukseom Hangang Park will interpret Seoul's history and memories through dance under the theme of the Han River and dance. Directed by Ruda Lee, the performance will feature the Black Toe Dance Company, the Seoul Metropolitan Dance Theatre,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e Melancholy Dance Company, and others, bringing the rhythm and energy of Seoul to life on a single stage. This will be followed throughout

올가을 서울을 가장 특별하게 만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은행잎으로 물든 거리를 걷는 일일 수도 있고, 한강 위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는 그런 가을에 공연 한 편을 더해보면 어떨까. 한강에서 시작된 무대는 대학로를 지나 서울 곳곳으로 이어지고, 극장은 도시의 풍경과 자연스럽게 맞닿는다. 공연은 무대에 머무르지 않고 거리와 광장,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서울의 가을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채운다. 올가을 서울은 예술을 단순히 '보는' 도시를 넘

What is the most extraordinary way to experience Seoul this autumn? It might be a stroll along streets painted golden with ginkgo leaves, or watching the sunset fade over the Han River. But this year, why not add a performance to the season? The stage begins on the Han River, passes through Daehangno, and extends to every corner of the city, where theaters blend seamlessly into the urban landscape. No longer confined to the stage, performances spill into streets, plazas, and everyday life,

어, 예술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하나의 거대한 극장이 된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73일간 열리는 2026 서울어텀페스티벌은 가을 시즌 서울 전역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축제를 연결하는 공연예술 플랫폼이다. 연극과 무용·음악·전통예술·거리예술은 물론 국제 포럼과 예술교육, 시민 참여 프로그램까지 아우르며 공연 예술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를 하나의 축제로 엮는다. 지난해 출범한 서울어텀페스티벌은 공공이 주도하는 행



사가 아닌 공연예술계와 함께 만들어가는 민관 협력형 축제로 시작됐다. 올해는 국악인이자 배우 오정해 공동추진위원장과 송형중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기획·자문·홍보위원회와 참여사업단 등 다양한 공연예술계 주체가 축제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며 서울 대표 공연예술 시즌으로 한 단계 도약을 모색한다.

한강에서 시작되는 73일의 여정

축제의 첫 장면은 한강에서 시작된다. 9월 18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개막공연은 한강과 춤을 주제로 서울의 시간과 기억을 무용으로 풀어낸다. 이루다가 연출을 맡고 블랙토무용단·서울시무용단·한국예술종합학교·멜랑콜리댄스컴퍼니 등이 참여할 예정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흐름과 에너지를 하나의 무대로 선보인다. 이어 서울국제발레축제와 서울세계무용축제·전국무용제·서울무용제 등 국내 대표 무용 축제가 가을 내내 이어지며, 서울은 도시 전체가 춤추는 무대로 변모한다.

9월 19일과 20일 진행되는 서울거리예술축제는 한강과 서울숲 일대에서 도시 전체를 공연장으로 바꿔 놓는다. 거리와 광장, 공원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작품은 시민이 일상을 걷다 자연스럽게 예술과 마주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지난해 청계천에서 처음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 아트레킹도 한층 확장된다.

the autumn by Korea's leading dance festivals, including the Seoul International Ballet Festival, Seoul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the National Dance Festival, and the Seoul Dance Festival, transforming the entire city into a stage alive with dance.

On September 19 and 20, the Seoul Street Arts Festival will turn the Han River and Seoul Forest area into a vast performance venue. Diverse works presented throughout streets, plazas, and parks will offer residents the unique experience of naturally encountering art as they go about their daily lives. Art Trekking, which made its debut along Cheonggyecheon last year to enthusiastic public response, returns on an even larger scale. This program invites participants to walk through the city while following a series of performances. This year, the route will connect Ttukseom Hangang Park and Seoul Forest, offering a new festival experience that combines Seoul's landscapes with the performing arts.

The heart of the Seoul Autumn Festa is Daehangno. This autumn, Daehangno will host more than 70 performances and programs, along with 15 evening cultural events. Audiences can enjoy performances in theaters during the day and on the streets at night, experiencing Daehangno—the heart of Korea's performing arts scene—from multiple perspectives. One highlight is “QUAD, Questions of Theatre: Evolving Texts,” presented by Daehangno Theater QUAD. Leading Korean theater directors—including Ara Kim, Kwangbo Kim, Woo-ok Kim, Seong-yeol Lee, and Taesook Han—will reinterpret the questions contemporary theater asks. Conceived at a time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dvanced technologies are rapidly transforming everyday life, the program invites audiences to reflect anew on the essence of theater as one of humanity's most profound art forms.

서울무용제 무대에 선 무용수 김시원
Dancer Siwon Kim on the stage of the Seoul Dance Festival



2025 서울어템페스타 기간 서울광장에 마련된 관객 참여형 행사
A visitor-interactive program organized
at Seoul Plaza during the Seoul Autumn Festa

공연을 따라 도시를 걷는 이 프로그램은 올해 독점한 강공원과 서울숲을 잇는 코스로 운영되며, 서울의 풍경과 공연예술을 함께 즐기는 새로운 축제 경험을 제공한다.

서울어템페스타의 심장은 대학로다. 올가을 대학로에서는 70여 편의 공연과 프로그램, 15개의 야간 문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낮에는 극장에서, 밤에는 거리에서 공연을 즐기며 관객은 공연예술의 중심지 대학로를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주목할 프로그램은 대학로극장 퀴드의 '퀴드, 연극의 질문들: 진화하는 텍스트'다. 김아라·김광보·김우욱·이성열·한태숙 등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출가들이 참여해 동시대 연극이 던지는 질문을 새롭게 풀어낸다. AI와 첨단기술이 빠르게 일상을 바꾸는 시대, 가장 인간적인 예술인 연극의 본질을 다시 묻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의 경험은 무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정식 공연을 앞둔 작품을 쇼케이스 형태로 선보이는 '제철연극', 창작자와 관객이 공연 후 이야기를 나누는 '애프터시어터', 서울연극창작센터 공간개방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공연의 여운을 도시로 확장한다.

서울, 세계의 플랫폼이 되다

서울어템페스타는 공연 애호가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다. 연령과 관심사, 문화 향유 방식에 따라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공연예술을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마련했다.

청년은 서울청년문화패스와 연계해 부담 없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청소년은 학교 공연예술 프로그램 '공연봄날'을 통해 뮤지컬 <긴긴밤> 등 우수 작품을 만난다. 공연을 처음 접하는 시민도 자연스럽게 공연예술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관람의 문턱을 낮췄다.

서울어템페스타가 자체 기획한 공연예술 큐레이션 서비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공연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작품을 추천해 공



The performance experience does not end when the curtain falls. Programs such as "Seasonal Theater," which showcases upcoming works ahead of their official premieres, "AfterTheater," where creators and audiences continue the conversation after a performance, and the Open Space Festival at the Seoul Theater Creation Center extend the experience beyond the stage and into the life of the city.

Seoul Becomes a Global Platform

The Seoul Autumn Festa is not a festival solely for devoted performing arts enthusiasts. A wide variety of programs and services have been designed so that anyone—regardless of age, interests, or preferred way of engaging with culture—can experience the performing arts in their own way.

Young adults can attend performances at reduced cost through the Seoul Youth Culture Pass, while students can discover acclaimed productions such as the musical *The Long, Long Night* through the school performing arts program "Performance Spring Day." By lowering the barriers to attendance, the festival makes it easier for first-time audiences to discover and enjoy the performing arts.

Also noteworthy is the Seoul Autumn Festa's own performing arts recommendation service. Rather than

연 애호가들은 물론 처음 공연장을 찾는 시민도 자신에게 맞는 공연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된다. 서울스테이지와 연계한 난버벌 공연을 열고 공항과 관광 거점에는 공연 안내 리플릿을 비치하는 등 좀 더 쉽게 공연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 인플루언서와 함께 제작하는 디지털 콘텐츠도 서울 공연예술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된다.

공연을 감상하는 데서 나아가 예술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서울연극센터와 서울무용센터 등에서는 원로 예술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마스터피스 토크'가 열리고, 서울시민예술학교는 공연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여기에 자치구 공연과 지역 축제까지 함께하면서 시민은 생활권 가까이에서 서울어템페스타를 만나게 된다.

나아가 서울어템페스타는 서울의 공연예술을 세계와 연결하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서울국제예술포럼을 비롯해 서울미래연극제 연계 해외 진출 사업 'ST-NOVA', 파브리카 유로파 Fabbrica Europa 협력 사업, 주위싱턴한국문화원 협력 프로그램, 해외 안무가 초청 워크숍 등 다양한 국제 교류 사업이 이어진다. 가장 아름다운 이 계절, 서울은 공연예술로 시민과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73일간 이어질 서울어템페스타의 무대가 이제 막을 올린다.

simply listing performances, it recommends productions based on individual tastes and interests, helping both dedicated theatergoers and first-time visitors easily find performances that suit them. Services for international visitors have also been expanded. The festival will present non-verbal performances in partnership with Seoul Stage, while performance guides will be available at airports and major tourist destinations, making it easier for overseas visitors to discover performances throughout the city. Digital content produced in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influencers will further showcase the appeal of Seoul's performing arts to audiences around the world.

The festival also offers opportunities to go beyond simply watching performances by encouraging deeper engagement with the arts. At the Seoul Theater Center, Seoul Dance Center, and other venues, Masterpiece Talks will give audiences the opportunity to meet distinguished veteran artists and explore their lives and artistic worlds firsthand. Meanwhile, the Seoul Citizens Arts School will offer arts education programs linked to festival performances. Together with district-level performances and local festivals, these programs allow residents to experience the Seoul Autumn Festa close to where they live.

More broadly, the Seoul Autumn Festa serves as a platform connecting Seoul's performing arts with the world.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exchange initiatives will take place throughout the festival, including the Seoul International Arts Forum, ST-NOVA—an international outreach program associated with the Seoul Future Theater Festival—collaborative projects with Fabbrica Europa, partnership programs with the Korean Cultural Center, Washington, D.C., and workshops led by invited international choreographers. In this most beautiful of seasons, Seoul stands ready to welcome both its citizens and the world through the performing arts. The curtain is about to rise on the 73-day journey of the 2026 Seoul Autumn Festa.

기술이 예술을 깨울 때, 린츠에서 응답했다

언폴드엑스 17년, 발굴에서 진출까지

조상인 서울경제 문화부 미술전문기자, 『살아남은 그림들』 저자

세계 미디어아트와 최고 권위인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에서 한국 작가 두 팀이 나란히 호명됐다. 6월 22일 발표된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2026 수상자 명단에 '우주+림희영'과 이정우가 나란히 오른 것. 106개국에서 4,329점이 출품된 경쟁이었다. '우주+림희영'은 인터랙티브 아트 플러스Interactive Art +, 이정우는 뉴 애니메이션 아트New Animation Art 부문에서 각각 영예상Honorary Mention을 받았다.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는 '디지털 예술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린다. 1979년 시작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을 모태로 1987년 출범해 해마다 가장 혁신적인 미디어아트를 가려왔다.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 작가는 지금까지 손에 꼽힌다.

두 수상자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지난해 서울문화재단 융합예술지원사업으로 발굴돼 제작 지원을 받았고, 언폴드엑스Unfold X 2025에서 신작을 처음 공개했다. 그 작품이 곧장 해당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을 품에 안은 것이다. '우주+림희영'의 〈새는 없다〉는 하얀 모래 위를 새 모양의 기계 장치가 원을 그리며 걷는 키네틱 작업이다. 이정우의 〈씩여진 영화, 씹여질 역사〉는 한국 최초의 독립 서사영화 〈자유만세〉1946를 복원했다. 정치적 검열로 삭제된 장면을 대본에 근거해 시가 되살렸고, 스크



린에는 알고리즘의 편향을 가한 우스꽝스러운 '기술적 검열'이 함께 걸렸다.

언폴드엑스는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융합예술 지원·발표 플랫폼이다. 재단이 작가를 발굴하고, 제작을 지원하고, 축제로 발표한다. 발굴에서 발표까지 한 흐름으로 잇는 구조다. 기술이 예술을 자극하고, 그 자극이 새로운 예술을 낳기 바라는 자리에서 출발했다.

주목할 부분은 성과의 축적이다. 김아영은 서울문화재단 지원으로 제작한 '딜리버리 댄서Delivery Dancer' 연작으로 2023년 최고상인 골든 니카Golden Nica를 한국인 최초로 받았다. 같은 해 언폴드엑스 2022 출품작으로 상회가 특

별상Award of Distinction을, 2025년에는 세 차례 서울문화재단 융합예술지원을 받은 후니다 김이 영예상을 받았다. 김아영의 경우 2025년 한국 작가 최초로 LG 구겐하임 어워드를 수상했고, 독일 함부르크 반호프Hamburger Bahnhof와 뉴욕현대미술관MoMA 분관 PS1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지원이 수상으로, 수상이 세계 무대로 이어졌다. 언폴드엑스의 뿌리는 2010년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2014년 다빈치 크리에이티브를 거쳐 지금의 이름에 달았다. '기술에 영감을 주는 예술'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한국을 대표하는 융합예술 축제로 자리잡았다. 언폴드엑스 2026은 11월 26일 문화역서울284에서 막을 올린다.

한 단계 도약을 만날 듯하다. 복미 아트앤테크 분야를 대표하는 작가 겸 기획자 알랭 티보Alain Thibault를 예술감독으로 임명했다. 국내 신작 12편과 해외 초청 10여 팀이 관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창작자의 도전을 격려할 서울융합예술상(가칭)도 신설된다. 송형중 서울문화재단 대표는 "이번 수상은 K-아트의 위상을 입증하는 성과"라며 "고도화된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국제적 도약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은 9월 린츠에서 열리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2026에 공식 초청된다. 그중 한 팀인 '우주+림희영'(2004년부터 유병준과 임희영이 함께 작업해온 듀오)을 만났다.

우주+림희영, 〈새는 없다〉,
2025, 언폴드엑스 전시 전경

“기술은 감춰져 있기를 바란다” 우주+림희영



팀 이름이 독특하다.

임희영 2004년부터 함께 활동했다. 공모전 제출 서류를 쓰느라 부랴부랴 만들어진 이름 같다. 다만 ‘우주’라는 단어를 팀명에 넣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기억은 또렷하다. 오래 같이하다보니 이제는 굉장히 얹혀 있는 상태가 됐다. 각자 끊임없이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고 있다.

유병준 지금 생각하면 오그라들지만, 20대 때는 나름 진지했다. 내 안을 보기보다 내가 모르는 바깥세상을 알아가다보면 결국 나를 찾게 되지 않을까 싶었다. 나를 뺀 나머지 전부를 한 단어로 하면 ‘우주’더라. 이 단어 특유의 B급 감성도 좋았다.

수상 소감을 듣고 싶다.

임희영 프리 아츠 일렉트로니카 공모는 작품 노출을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참여한 것이었다. 몇 년 전 맨체스터 전시에서 만난 런던 작가에게 이건 무료 홍보 기

회니 활용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막상 수상하니 기쁘고 신기할 따름이다. 0.01점 차이로 어쩌다 얻어걸린 건 아닌가 하는 상상도 잠깐 했다. 이번 수상작으로 아츠 일렉트로니카 센터에서 1년 전시 제안까지 받았다. 준비할 것이 많다. 걱정 반, 설렘 반이다.

수상작 <새는 없다>는 어떻게 태어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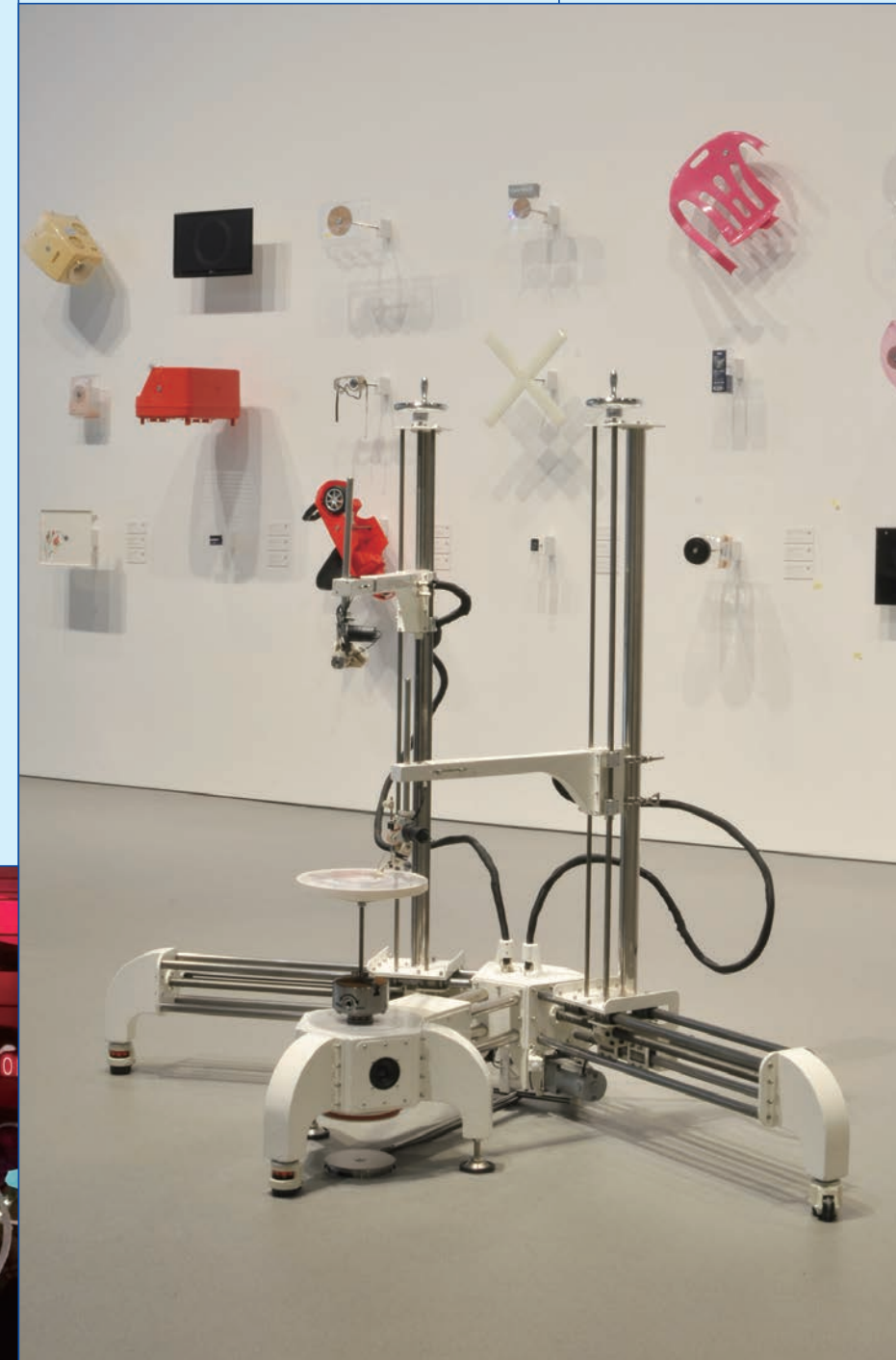
임희영 새 관찰하는 것을 좋아한다. 산책길의 참새·박새·직박구리·까치·까마귀, 봄여름의 제비, 겨울 철새. 기특하고 경이롭고 귀엽고 존경스러운 존재들이다. 한겨울 눈 위에 찍힌 양증맞은 새 발자국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느낌을 작품에 쓸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머릿속에 넣고 몇 년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렸다. 늘 품고 있던 자연에 대한 죄책감과 결합하면서 지금의 작품으로 마무리됐다.

유병준 처음에는 발자국을 남기는 설치였다. 그러다 무

인도에 살던 날지 않는 새가, 인간이 개입하면서 멸종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섬에 발자국을 지우는 기계가 있었다면 그 새는 멸종하지 않았을까. 남기는 기계와 지우는 기계가 함께 있는 구조로 아이디어가 확장됐다. ‘새처럼 걷는 기계’는 고독해 보이기를, ‘지우는 기계’는 모래 위 흔적을 없애는 자동화 장치이기를 바랐다. 물리적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은 실제로 만들고 테스트하는 것뿐이었다. 설계와 재료 변경, 프로그래밍, 분해와 조립이 반복됐다. 기술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다. 기본적인 모터 제어다.

전작 <Song from Plastic>에서부터 이어지는 인류세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읽힌다.

임희영 인류세나 환경 문제에 관한 특별한 철학이라기 보다는 ‘인간’이 작업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인간을 생각하다보니 환경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뿐이다.



유병준 돌이켜보면 10년을 주기로 흐름이 바뀌었다. 초기 10년은 인간의 욕망과 꿈과 판타지를 다뤘고, 2015년 이후 10년은 인간의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을 직설적으로 다뤘다. 기계의 역할에서도 그 변화가 드러난다. 초기의 기계는 실현 불가능한 기능을 마치 해낼 것처럼 ‘보여주는’ 데 머물렀다. 이후의 기계는 오브제와 결합해 기괴하고 새로운 움직임을 ‘실제로 구현한다’. <Song from Plastic>도 인간 문명이 남긴 플라스틱 쓰레기에 소리를

↑ <Song from Plastic>, 2022
← <춤추는 가면·어둠먹는 기계>, 2011, 델러스 AT&T 공연예술센터 2016년 전시 전경



〈Machine with Tree〉, 2020

새기고 재생하는 실제 기능의 장치다. 인간이 지구에 남기는 흔적은 무엇이고,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묻고 싶었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해가는 요즘, 인간의 위치와 가치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가장 크다.

진화하는 기술을 어떻게 따라잡나.

임희영 따라잡을 수 없다. 너무 빨라서 포기한 지 오래다. 오히려 기술은 최소한으로 쓰고 작품의 이야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편이다. 화려한 테크닉을 구사하지는 못해도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 작업의 방향이란 마치 생명을 가진 것처럼 자기가 알아서 나아가는 것 같다. 우리가 방향을 이끌 때도 있지만, 방향이 우리를 이끌 때도 있다.

유병준 지금까지 발표한 작업은 기술적이라기보다 대단히 물질적이고 피지컬한 방식을 취한다.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어떤 이야기와 감정을 표현할 것인지에 있다. 기술이 작품 안에서 최대한 감춰져 있기를 바란다. 전면에 드러나기보다 눈에 보이는 시각적 요소와 자연스럽게 녹아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할 태도다.

마침, 최근 미디어아트 특화 미술관인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에서 작품들을 선보였다.

유병준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개관 특별전에 초기작 〈사랑의 타워_사랑에너지증폭장치〉2008과 〈분홍색 기계〉2019, 그리고 신작까지 세 점을 내놓았다. 신작 〈심박 신호를 이용한 과자포장 개봉 장치〉는 ‘신체의 정보화’라는 전시 콘셉트에 맞춰 제작을 의뢰받은 관객 참여형 장치다. 네 명이 함께 참여해야 작동한다. 각자 어깨에 심박 센서를 차면 중앙의 기계가 네 사람의 심박이 동시에 발생하는 순간을 센다. 심박이 연속해서 일치하면 3단계 구동을 거쳐 과자 봉지가 열린다. 과자는 참여자들이 나눠 먹는다.

임희영 봉지 하나 뜯자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고 싶었다. 인간의 생체 정보와 기술이 결합된 복잡한 시스템이 극히 사소한 목적에 쓰이는 상황을 풍자하려고 고른 소재다.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묻고 싶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가, 효율과 편의만을 위해 불필요한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다.

오케스트라의 가장 깊은 중심

김보람 서울시립교향악단 악보전문위원

박재림 [문화+서울] 에디터 | 사진 Studio Kenn

한 곡의 연주 뒤에는 이처럼 치밀한 악보 준비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악보전문위원은 ‘지휘자만큼 오케스트라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보에는 지식재산권 문제부터 지휘자의 해석을 구현하는 예술적 요구까지 다양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지휘자의 음악적 해석은 결국 악보를 통해 단원에게 전달되지요. 따라서 마킹이 부정확하거나 준비가 늦어지면 아무리 뛰어난 해석도 무대에서 온전히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악보가 정확하게 정리되면 오케스트라는 리허설 시간에 연주 완성도를 높이는 데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악보전문위원은 무대 위에서 직접 소리 내지 않지만, 그 소리의 시작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휘자가 음악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악보전문위원은 오케스트라가 이를 향해 정확하게 나아가도록 길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습이나 공연을 준비하는 도중에 악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지휘자의 해석에 따라 현악기의 보잉이나 곡의 다이내믹을 수정할 때입니다. 리허설 전 지휘자나 악장에게 정리된 악보를 받으면 이를 색션 수석에게 전달하고, 확정된 내용을 각 단원의 파트보에 옮겨 적어 리허설 전에 배부합니다. 리허설하는 중에 지휘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곧바로 파트보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은 기척 공연이나 협업 사업을 위해 새로 편곡된 악보를 다룰 때입니다. 촉박한 일정 속에서 수정본이 여러 차례 오가거나 때로는 파트 전체를 다시 손보기도 합니다. 저는 질 좋은 악보가 좋은 연주의 토대가 된다고 믿습니다. 결국 제가 하는 일은 악보의 완성도를 높여 연주자가 음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좋은 악보전문위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있을까요? 기본적인 음악 지식과 악보 독해 능력은 필수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장에서 필요한 자질을 꼽자면 첫째는 꼼꼼함입니다. 음표 하나, 마디 하나의 작은 오류가 100여 명 단원이 움직이는 공연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서울시립교향악단에 근무하고 계시지요. 악보전문위원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하나의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고 가정해볼까요?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악보전문위원은 가장 먼저 출판사에 확인해 작품에 가장 적합한 에디션(판본)을 찾습니다. 지휘자가 선호하는 판본이 있는지, 악단이 보유한 악보가 있는지 확인하지요. 어떤 악보를 선택하느냐가 공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유한 악보가 없다면 구매하거나 임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저작권과 대여료·중개료 등 행정적인 사항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악보가 도착하면 편성에 맞는지와 누락 여부를 확인한 뒤, 보잉(bowing)과 마킹을 파트보에 옮겨 적습니다. 악보의 오류를 수정하고 페이지 턴까지 손보는 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리허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일찍 확정될수록 악보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지휘자의 의도도 연주자에게 더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첫 리허설에는 직접 현장을 지키며 악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악보를 반납하거나 아카이빙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관객이 듣는



정명훈&서울시립교향악단
『말러 교향곡 5번』

김보람 악보전문위원이 가장 애정하는 악보로 꼽은 말러 교향곡 5번은 지휘자 정명훈이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자주 선보인 레퍼토리의 하나로, 2014년 5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공연 실황을 녹음해 2015년 도이치그라모폰에서 발매했다. 4악장 '아다지에도'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 삽입돼 잘 알려지기도 했다.

유연함과 순발력입니다. 리허설 도중 갑작스러운 수정 요청이 이뤄지거나 공연 직전 변수가 생겨도 빠르게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첫 리허설 날이 가장 바쁩니다. 셋째로, 소통과 중재 능력입니다. 악보전문위원은 지휘자와 단원, 출판사, 사무국을 연결하는 허브와 같습니다. 각자의 요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도 넓은 시야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수많은 작품을 다뤘을 텐데, 가장 아끼는 악보나 기억에 남는 연주가 있나요?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간 악보가 애정이 큼니다. 저에게는 말러 교향곡 5번이 그렇습니다.

당시 정명훈 음악감독님께서 현재는 유통되지 않는 옛 판본을 원하셔서, 새로 임대한 악보와의 차이를 한 음 한 음 대조하며 교정했습니다. 많은 공을 들인 만큼 공연과 음반 모두 높은 완성도로 남아 지금까지도 깊은 애정을 느낍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지난해 야프 판 즈베덴 음악감독의 지휘로 선보인 바그너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입니다. 콘서트오페라가 아니라 오페라하우스에서 정식으로 올린 무대였어요. 작품의 규모가 워낙 커 쉽게 만날 수 없는 공연인 데다, 단원의 노력도 대단했습니다. 한국에서 언제 다시 이런 무대를 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강렬한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악보전문위원으로 일하며 느끼는 보람과 기쁨의 순간이 궁금합니다. 악보전문위원의 손길이 많이 닿을수록 관객의 관람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제가 정성껏 다듬은 악보의 음표가 연주자의 소리로 피어나는 순간은 늘 신기하고 벅칩니다. 작곡가가 고심해 선택한 악기들의 어울림과 화음이 객석까지 전달돼 감동을 줄 때 큰 보람을 느끼지요. 저는 첫 리허설부터 음악을 만나기 때문에 작품의 '첫 번째 관객'이 되는 특권도 누립니다. 한 편의 음악이 완성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세상에 처음 나온 악보

를 작곡가에게 직접 건네받기도 합니다. 악보실의 일은 완벽하게 해낼수록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고, 조금만 소홀해도 곧바로 티가 납니다. 하지만 정성을 기울인 악보의 차이를 연주자들은 분명히 알아봅니다. 지휘자의 철학과 음악이 전하려는 말을 오류 없이 단원들에게 전달하고,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며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얻습니다.

당신에게 '악보'란 어떤 의미인가요? 연주자와 주고받는 업무의 도구를 넘어서 존재입니다. 오래된 악보나 거장이 사용한 총보를 마주할 때면, 오랜 세월 음악의 가치를 지켜온 선배 음악가에게 감사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음악을 다음 세대에 전했듯, 저 역시 지금의 음악을 잘 보존해 미래에 전하고 싶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악보는 고정된 텍스트가 아닙니다. 리허설과 공연을 거치며 지휘자와 연주자의 해석과 호흡이 더해지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악보 위에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판본의 오류를 발견해 출판사에 의견을 전달하는 일 역시 더 나은 악보와 공연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훌륭한 연주가 있었다면, 그 찰나의 흔적도 악보 위에 남습니다. 지휘자들이 자신의 악보를 각별히 아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올해로 이 일을 시작한 지 22년째입니다. 돌이켜보면 악보는 제 젊음과 열정, 그리고 지나온 시간이 고스란히 기록된 장부वाद 같습니다.

앞으로 악단의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싶나요? 필요한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빛을 내며 일한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악보전문위원이라는 직무는 클래식 음악계 안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얼마 전 출간한 제 책 『악보가 말하지 않는 것들』에는 무대 뒤에서 묵묵히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과 실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제 경험이 후배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멀게는 이 길을 걷게 될 후배들이 저보다 나은 환경에서 깊은 자부심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듬는 악보 한 장이 결국 모든 오케스트라 음악의 가장 깊은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자부심으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도시의 조건이 되는 문화

박상현 오테레터 발행인

올해 여름 유럽은 거대한 열돐^{heat dome} 현상으로 끓어오르고 있다. 세계기상기구 WMO에 따르면 2026년 6월은 서유럽 역사상 가장 뜨거운 6월이었고, 이 글을 쓰는 7월도 가장 뜨거운 7월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파리는 최고기온이 40도를 넘겼고, 스페인과 독일에서도 40도를 넘긴 도시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도시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머물게 된 런던 역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과거 내 기억 속의 런던은 7월에도 비가 부슬부슬 내려 긴 소매 옷을 항상 준비해야 하는 도시였지만, 이곳에 도착한 지 2주가 되어 가도록 비는커녕 구름조차 보기 힘들다.

하지만 런던의 여름이 서울보다 더 덥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저녁 6시만 지나면 도시는 빠르게 식고, 시원한 바람이 분다. 서울 같은 열대야도 거의 없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서울보다 런던이 더 더운 것처럼 느껴졌다. 이유를 생각해보니 기온이 아니라 냉방시설에 있었다.

런던의 상징인 빨간 2층 버스에는 아직도 에어컨이 없는 차량이 적지 않다. 창문이 아예 열리지 않는 자리도 많고, 그마저도 안전을 위해 손바닥만큼만 열린다. 승객이 가득한 버스는 저녁 기온이 내려가도 실내가 후끈거리고, 한여름에는 마치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다. 런던 지하철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에어컨이 없는 노선이 여전히 많고, 파리 역시 일반적인 냉방 대신 외부보다 몇 도 정도만 온도를 낮추는 냉풍 환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노선이 적지 않다.

처음에는 의아했다. 세계적인 선진 도시들이 왜 이렇게 불편한 냉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물론 이유는 있다. 오래된 지하철 터널에 강력한 냉방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기술적 제약도 있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정책도 있다. 일본 역시 대부분 전철에 에어컨은 갖추고 있지만 한국보다 훨씬 높은 온도로 운행한다. 한국에서는 “너무 덥다”는 민원이 먼저 나오지만, 일본에서는 “너무 춥다”는 불만이 먼저 온다. 결국 어디까지 시원하게 만들 것인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받아들이는 서비스 수준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는 이 질문 자체를 다시 던져야 한다. 냉방은 과연 서비스일까?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다. 조금 더 시원하게 이동하기 위한 편의시설이었다. 그러나 폭염이 매년 심해지는 지금 냉방은 이동권과 건강권, 더 나아가 생존권을 보장하는 공공 인프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폭염은 모

두에게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에어컨을 켜고 이동하면 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고, 햇볕 아래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환승한 뒤 다시 걸어야 한다. 폭염은 이동의 모든 순간을 위협한다.

주거 환경도 마찬가지다. 저소득층일수록 단열과 환기 상태가 나쁜 집, 녹지와 그늘이 부족한 동네, 옥탑방이나 반지하처럼 열이 축적되는 공간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부담돼 마음껏 켜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같은 38도의 폭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하루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하루가 된다.

폭염은 자연재난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지만, 홍수나 산불처럼 눈에 보이는 재난은 아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나 호흡기 질환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폭염이 예보되면 도서관과 학교 강당 등 냉방시설이 있는 공공건물을 24시간 개방하는 도시가 있다. 냉방장치가 없는 집에 사는 노인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안전망이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는 시대에 도시가 폭염 대피소만으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최근 도시가 주목하는 것은 ‘거리의 냉방’이다. 사람들이 가장 오래 노출되는 곳은 집 안이 아니라 길 위이기 때문이다.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걷는 몇 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2~3분, 버스를 기다리는 10분이 폭염 속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 서울은 이 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해온 도시다.

확실한 냉방을 제공하는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이고, 횡단보도 그늘막, 스마트쉼터, 쿨링포그 같은 시설을 도시 곳곳에 설치했다. 얼핏 사소해 보이는 시설이지만, 신호를 기다리는 2분조차 정책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냉방을 건물 안이 아니라 거리로 가져온 것이다.

물론 서울의 정책도 완성형은 아니다. 지역별 격차도 있고, 더 많은 그늘과 나무, 쉼터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도 폭염을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우리는 흔히 문화 선진국을 박물관이나 공연장, 미식과 디자인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는 도시 문화의 기준도 조금씩 달라질지 모른다. 가장 더운 날에도 시민이 돈을 쓰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가장 취약한 사람이 폭염 때문에 일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도시가 돕는 것 역시 도시가 만들어내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좋은 도시는 가장 높은 빌딩을 가진 도시가 아니라, 가장 더운 날에도 가장 약한 시민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도시다. 서울의 그늘막과 스마트쉼터는 화려한 건축물은 아니지만, 기후위기 시대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이정표일지도 모른다.

문화예술정책으로
돌아보는
2026년 상반기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어느덧 2026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문화예술정책의 관점에서 한 번쯤 다시 돌아볼 만한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되짚어보자.

문화체육관광부 1차 추가경정예산 4,614억 원 집행

올해 4월,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적 위기로 인한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초예술인 등의 민생 안정을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4,614억 원 규모의 문체부 1차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시각·공연예술 민간 창작 공간 운영 및 창작자 지원(20억 원), 지역 순회전시 지원(20억 원), 문화가 있는 날 청년예술인 공연지원 확대(24억 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327억 8천만 원)와 예술산업 금융지원 확대(300억 원),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 추가 확충(7억 원),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260억 원), 첨단제작 집중 지원(80억 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45억 원), 청년의 현장 고용을 늘리기 위한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35억 원), 지역 기반 콘텐츠코리아랩과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의 창·제작 활동 지원(63억 원), 청년 콘텐츠 모태펀드(250억 원) 신규 조성(420억 원 이상 규모), 극장 및 공연업계 관객 회복을 위한 영화 관람 할인권(271억 원, 450만 장, 1매당 6천 원)과 공연예술 관람 할인권(41억 원, 40만 장, 1매당 1만 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등 문화향유 지원사업의 변화

문화의 일상화와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문체부는 기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진행한 ‘문화가 있는 날’을 올해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문화요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명 공연과 전시 등의 지역 순회를 지원하는 ‘우리 동네에도 이게 오네!’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성과 대중성, 경쟁력을 갖춘, 관객이 선호하는 주요 공연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공공 공연시설로 유통하기 위해 총 140억 원을 투입하는 대표 공연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이외에도 인생서점, 심야책방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전국 340개 지역서점에서 2,400여 개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문화

2026년 문체부 청년 정책은 총 41개 과제, 약 2,38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은 청년 창작자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순수예술 원천 창작자 3천 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포함해 대상자를 총 6천 명으로 확대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케이-컬처K-Culture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은 청년들이 국제문화교류 사업(프로젝트)을 직접 기획·수행하거나 해외 문화기관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국제 감각과 현장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청년 약 700명이 전 세계 36개국에 파견돼 활동할 예정이다.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착수

‘예술활동증명’은 특정인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직업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예술인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기본 자격 요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실제 예술 현장과 급변하는 예술 생태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올해 3월부터 현장 예술인이 참여하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 전담반TF을 운영, 현행 제도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예술인 편의 증진을 위해 낡은 예술활동증명 시스템 개선을 시작했다.

제5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출범

7월 14일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근거한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14명으로 구성된 제5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문화 균형 발전,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로서 그간 잠시 멈춰 있던 지역문화 현

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문화 정책에 연결하는 핵심적인 거버넌스 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공정 이용, 저작권 침해 대응, 공연 압표 문제는?

문체부는 올해 2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국문본과 영문본이 함께 발표됐다. 한편, 저작권법 개정으로 5월 11일부터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개에 대한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됐으며, 저작재산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연·스포츠산업 압표 문제 해결을 위해 50배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제 또한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은 2026년에 기대한다

이외에도 올해 5월 7일에는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6월 30일에는 제2차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6월에는 대중음악 공연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공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예산 총 120억 원을 투입, 체육·다목적 시설 대중음악 공연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힘들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이제 2년 차로 접어들었다. 지역에서도 6월 3일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인사들과 새로운 정책 사업이 펼쳐질 것이다. 늦어진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도 하반기 중에 발표 예정이다. 치적을 쌓기 위한 대규모 시설 조성이나 유치를 넘어서, 문화예술 분야의 역량을 키워내고 건강한 지역문화예술생태계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와 철학을 가진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THE SOUND
OF MACBETH
연출 김아라
9.8.-9.13.

옥상 밭
고추는 왜
연출 김광보
9.19.-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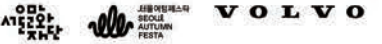
혁명의 춤
연출 김우옥
10.28.-11.8.

화염
연출 이성열
11.14.-12.6.

서안화차
연출 한태숙
12.16.-12.27.



서울·예술·이토다



2026 쿼드,
연극의 질문들:
진화하는
텍스트
2026.9.8.-12.27.

HAN KANG 한강

It was no coincidence
they were killed on
and another 200
the follow

그 겨울 삼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섬에서 살해되고,
이듬해 여름 육지에서 이십만 명이 살해된 건
우연의 연속이 아니야.

Ce n'est pas une suite de hasards
si 30 000 personnes ont été massacrées
sur cette île de Jeju cet hiver-là,
et 200 000 sur le continent l'été suivant

한국어를 통해 바라본 세계 제80회 아비뇽 페스티벌

전운혜 음악평론가 | 사진 제공 Festival d'Avignon

여름의 프로방스,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매미가 울고 담쟁이덩굴로 뒤덮인 벽마다 연극 포스터가 빼곡하다. 거리는 자신의 극을 홍보하는 배우들의 열정으로 뜨겁고, 벤치와 테이블은 두꺼운 프로그램북을 펼쳐 든 사람들로 분주하다. 거대한 교황청 안뜰에는 매일 밤 2천 석 규모의 대작이 오르며, 골목골목 소극장마다 세계 각국의 극이 펼쳐진다. 7월이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극장이 되는 이곳, 아비뇽 페스티벌의 풍경이다.

아비뇽 페스티벌이 올해 80회를 맞았다. 올 축제는 이 기념비적인 숫자만큼이나 한국 공연예술계에도 특별한 시간이었다. 한국어가 초청 언어Langue invitée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초청 언어 제도는 2023년 티아고 호드리게스 Tiago Rodrigues 예술감독이 “국경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선정된 언어는 프랑

스어와 함께 공식 포스터와 프로그램, 공연장 안내 등에 사용되며 해당 언어권 작품과 작가, 관련 행사가 축제 전반에 걸쳐 소개된다. 한국어로 된 표지판과 매표소는 물론 공식으로 마련된 바에서는 한국 음식도 판매됐다.

올해 공식IN 프로그램에는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2021를 원작으로 한 낭독극 〈새〉, 이자람의 창작 판소리 〈눈, 눈, 눈〉, 유럽 연극계에서 주목받는 구자하의 작품 시리즈 〈쿠쿠〉, 〈한국 연극의 역사〉, 〈하리보 김치〉 등 한국 작품 9편이 초청됐다. 지금까지 초청된 영어·스페인어·아랍어는 다국가 언어라 작품의 국적 또한 다양했지만, 한국어는 단일 국가, 단일 민족의 언어인 터라 더욱 자연스레 우리만의 공연예술을 집중 조명하는 무대가 되었다. ‘뉴욕 타임스’는 “올해는 초청 언어의 의미가 전보다 선명하게 드러났으며, 서구 무대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한국어를 만날 기회였다”고 평했다.

7월 15~16일 축제의 상징인 교황청 명예의 뜰Cour d'honneur du Palais des papes에 〈새〉가 올랐다. 교황청의 육중한 벽에 둘러싸인 약 2천 석 규모의 중정형 야외극장이다. 〈새〉는 이곳에 오른 첫 한국어 작품이며, 이해영은 이곳에 선 최초의 한국 배우가 됐다. 공연은 새하얀 무대 위 이해영과 이자벨 위페르가 각각 인선과 경하 역을 맡아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대화를 이어갔다. 뒤의 벽에 영어 자막과 프랑스어와 한국어 자막이 번갈아 영사됐다. 친구 인선의 부탁으로 제주에 홀로 남겨진 새를 돌보기 위해 떠난 경하의 여정이 제주 4.3사건의 기억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끝 무렵 한강 작가가 직접 무대에 올라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낭독하며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이해영은 16일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표 배우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왔다. 아비뇽처럼 관객 수준이 높은 무대에 서게 되어 영광이다. (...) 두 언어가 충돌할지 조화를 이룰지, 한국어가 음악으로 들릴지 소음으로 들릴지 경험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라고 전했다.

17일 아비뇽 오페라극장에서는 이자람의 〈눈, 눈, 눈〉이 프랑스 초연됐다. 톨스토이 『주인과 하인』을 판소리로 재창작한 작품으로, 폭설 속에서 해매는 주인과 하인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탐욕과 구원을 그린다. 시작 전 이자람은 판소리와 추임새를 소개하며, 추임새로 쓸 만한 프

교황청 명예의 뜰에서 공연된
〈새〉 무대에는 배우 이해영,
소설가 한강, 배우 이자벨
위페르가 나란히 섰다 ©Christophe
Raynaud de Lage/Festival d'Avignon



랑스어 감탄사를 제안하는 등 관객의 참여를 이끌었다. 검은 배경, 부채 하나와 장구 하나뿐인 무대였지만 그는 소리와 연기로 극장을 러시아 눈보라 속으로 데려갔다. 공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매번 비공식 부문인 ‘오프어’에 올랐던 이자람이 환호와 함께 ‘공식N’에 데뷔한 것이다. ‘르 몽드’는 “단 1분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를 사로잡았다”, ‘리베라시옹’은 “숨 막힐 듯한 연기”라고 평했다.

한국 문화는 축제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공식 토론자인 ‘카페 데 지데’에서 한강(7월 12일)과 이자람(20일)이 관객을 만났고, 영화관에서는 한국영화 특별전이 열렸다. 교황청에서는 이우환의 장소 특정 전시《Relatum》이 개최됐다. <눈, 눈, 눈>의 프랑스어 번역가이자 프랑스에 판소리를 소개하는 한국소리페스티벌K-VOX을 운영하는 한유미 박사는 “프랑스에서 30년을 지내는 동안 한국의 국적이 차근차근,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느끼고 있다”며 “올해 아비뇽으로 그 정점을 찍은 것 같다”고 전했다.



↑ 현지 관객과 호흡한 리퀴드사운드의 무대 ©Christophe Raynaud de Lage/ Festival d'Avignon

← 이진엽 연출 <물질> 무대 ©Christophe Raynaud de Lage/Festival d'Avignon

← 공연 포스터가 빼곡한 아비뇽 거리 ©전윤혜

이번 초청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추진됐다.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예술경영지원센터·서울국제공연예술제 등이 아비뇽과 지속해온 교류가 기반이 됐다. 또한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가 함께 만든 결과다. 공식 초청작 가운데 이진엽의 <물질>은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으로 시작해 서울거리예술축제를 거쳐 해외 무대로 확장된 작품이다. 한 작품이 지역의 창작 지원을 발판으로 세계적인 축제에 다다른 과정은 우리 공연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올여름 아비뇽이 초대할 것은 작품만이 아니었다. 한국어라는 언어와, 그 언어를 무대에 올린 예술가, 그리고 그들을 오랫동안 지원해온 창작 생태계도 함께였다. 그렇게 한국어는 번역의 대상을 넘어선 공연 언어가 됐고, 한국 공연예술은 세계와 동시 대적 감각을 나누는 주요 예술이 되고 있다.

초록, 건강의 색 Green, the Color of Health

김영민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Youngmin Kim Professor,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특별한 공약이 제시됐다. 집값 잡기도, 재건축 촉진도, 세계적 관광 도시도 아닌 ‘건강 도시’가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이었다. 건강하게 살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공기가 맑아야 하며, 물도 깨끗해야 할 것이며, 곳곳에 운동할 곳도 많고, 스트레스도 적게 받아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일 것이다. 생각해 보면 건강한 도시는 녹색의 도시와 다른 말이 아니다. 도심에 나무가 많아야 공기도 맑아지며, 녹음이 있어야 더운 여름의 열기를 피할 수 있다. 산이 깊고 숲이 우거져야 그곳에서 나오는 물도 깨끗하다. 공원이 곳곳에 있고 걷기 좋은 산책로가 많아야 일상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 지친 일과를 마쳤을 때 우연히 마주하는 도심 정원의 향기와 풀 내음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잊게 한다.

녹색 도시가 건강한 도시라는 말은 단지 비유적 수식어 아니다. 미국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원 접근성이 좋을수록 어린이의 비만율이 낮다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공원에 가까운 동네에 살수록 각종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의 비율도 낮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쳤을 때 공원과 가까운 주거지에 살수록 우울감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그리고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트랙이 있는 공원에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많다는 연구도 제시됐다. 국내의 많은 연구가 녹색이 풍부할수록, 그리고 녹색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될수록 도시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공원에 왜 갈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산책, 즉 걷기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원의 이미지는 숲과 산 같은 녹음의 풍경이다. 사람들은 자연을 보며 걷기 위해 공원을 가장 많이 찾는다는 것이다. 너무 진부할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여서 오히려 흥미로웠다. 가장 유행이 빨리 변한다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이 자극적이어서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요즘, 자연 속에서 걷기라니. 녹색 공간이 건강한 삶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앞선 연구 결과와 자연 속의 걷기를 좋아하는 시민의 취향이 만날 때 우리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서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녹색이 풍부할수록 건강한 환경이 된다는 것은 어쩌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녹색과 건강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다. 건강은 보건과 의료의 영역이고, 여기는 체육, 그리고 공원과 녹지는 조경의 영역이다. 그래서 건강은 의사가, 여기는 체육 전문가가, 공원 녹지는 조경가가 담당한다. 교집합이 있다는 것은 분명 서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함께 도시를 만들 기회는 없었다. 그런

In Seoul's recent mayoral election, one campaign promise stood out. Rather than focusing on stabilizing housing prices, accelerating redevelopment, or transforming Seoul into a global tourist destination, the leading pledge was to make the city a “healthy city.” Living healthily requires many conditions. A city where people can live healthily must have clean air, pure water, plenty of places to exercise across the area, and low levels of stress. When you think about it, a healthy city is essentially synonymous with a green city. Trees throughout the city help keep the air clean, while abundant greenery offers relief from the summer heat. Deep mountains and dense forests provide clean water. Parks scattered throughout the city and well-maintained walking trails make physical activity a natural part of daily life. The fragrance and scent of grass from a downtown garden, encountered by chance after a tiring workday, wash away the day's stress.

The statement that a green city is a healthy city is not merely a metaphor. When the United States declared war on obesity in the name of public health, an intriguing research finding emerged: the better children's access to parks, the lower their obesity rates. Studies also found that people living in neighborhoods closer to parks were less likely to suffer from chronic disea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tudies also found that people living near parks experienced lower levels of depression. Another study showed that parks with walking tracks encouraged the elderly to be more physically active. Numerous domestic studies confirm that the more greenery there is and the more equitably it is distributed, the healthier urban life can be.

So why do people visit parks? According to one study, the activity Koreans engage in most often at parks is simply walking. And the park scenery people prefer most is lush, verdant landscapes reminiscent of forests and mountains. In other words, people visit parks primarily to walk while enjoying nature. What is striking is how obviously true this finding is. In a country where trends change at lightning speed and where everything seems to need to be stimulating to earn a “like” these days, people are choosing to walk in nature. When this preference for walking in green spaces aligns with research demonstrating that greenery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healthy living, we can begin to envision what a vibrant, healthy Seoul should look like.

That more greenery creates a healthier environment may seem like pure



데 일상이 건강한 도시, 늘 활력이 넘치는 도시는 이 세 영역이 만날 때 가능하다. 그러나 그 만남은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민은 이 도시에서 건강한 삶의 공식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손목닥터9988’을 켜고 근처 공원에 나간다. 가볍게 몸을 풀고 돌레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한다. 뛰다보니 어느새 한강에까지 이른다. 한강의 풋살장·테니스장·농구장에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오늘은 조금 무리를 했기에 돌아가는 길은 따릉이를 타고 가기로 한다. 돌아오는 길에 새로 생긴 동네 지천의 서울물빛나루에 들러 차가운 커피를 마시고 잠시 휴식을 취한다. 집에 가까워지니 뒷산 근처에 생긴 정원센터가 보인다. 아이들이 모종삽을 들고 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다음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랐던 정원센터를 방문해야겠다. 이미 시민은 여기저기 만들어진 가능성들을 엮어내어 자기만의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정책이 할 일은 무엇일까? 앞서 말한 이상적인 건강도시의 연결고리는 아쉽게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멋진 물빛나루가 있는 천변 돌레길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하는 이들도 있고,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른 공원이 없는 동네도 아직 많다. 곳곳에 공공의 정원이 만들어지고 이를 가꾸게 지원해주는 정원센터가 생겼지만 나오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도 있다. 나의 건강 상태를 무료로 체크해주는 서울체력장이 생긴다지만

common sense. Yet in terms of public policy, the connection between greenery and health is more distant than one might expect. Health belongs to the fields of public health and medicine; leisure falls under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parks and green spaces are the province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refore, health is handled by doctors, leisure by sports experts, and parks and green spaces by landscape architects. While everyone recognizes that these fields overlap, opportunities to collaborate in shaping the city have been rare. Yet a city where daily life is healthy—a city that is always full of vitality—becomes possible only when these three domains converge. Fortunately, that collaboration is not as difficult as it sounds, because citizens are already forging their own formulas for healthy urban living.

You open the “Wrist Doctor 9988” app and head out to a nearby park. After a light warm-up, you start jogging along the trail. Before you know it, you’ve reached the Han River. The futsal courts, tennis courts, and basketball courts along the Han River are packed with people working out. Having pushed yourself a little too hard today, you decide to ride a “Ttareungi” public bike on the way home. Along the way, you stop at the newly opened “Seoul Mulbit Naru” waterfront pavilion beside a neighborhood stream, enjoy an iced coffee, and take a short rest. As you get closer to home, you notice a garden center that has opened near the hillside behind the neighborhood. Children are holding trowels and listening to someone explain about flowers. Next weekend, you think, you should take the kids up the hill and then visit the garden center. Citizens are already weaving together these scattered opportunities to build their own version of a healthy city.

So what remains for policy to do? Unfortunately, the connected, ideal healthy-city scenario described above is not yet a reality available to everyone. Some people still have to ride a bus for quite some time just to reach a streamside trail with a “Mulbit Naru” pavilion, and many neighborhoods still lack parks large enough for exercise. Public gardens are being created throughout the city, and garden centers have been established to help people care for them, but these facilities still feel out of reach for many residents. Seoul Fitness Centers, which offer free physical fitness assessments, are being established, but they are difficult to find along the everyday walking routes and parks people actually use, and many residents do not even know they exist. The role of public



내가 늘 걷는 산책길이나 공원에서는 찾기 어렵고,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정책이 할 일은 여기저기 마련된 자원을 하나로 묶고,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소외된 지역에는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자원을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을 위한 장소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여러 건강한 도시를 위한 장치와 프로그램을 묶는 것이 녹색의 공간이었으면 한다. 녹색은 남녀노소의 건강뿐 아니라 동식물, 그리고 나아가 환경 전체의 건강함을 말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policy is to connect these scattered resources into a network that everyone can access, and to provide underserved communities with the new resources and spaces needed to support healthy living. My hope is that green space will serve as the thread that ties together these various facilities and programs for a healthy city—as greenery is an indicator not only of the health of people of all ages and genders, but also of the well-being of plants, animals, and ultimately the environment as a whole.

노제현

공공공간예술·연극·신체극

@nho_jeahyun

2026 서울거리예술축제 참여 예정

2024·2022 서울거리예술축제 참여

2024·2021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창작지

원사업 선정

2018 거리예술 넥스트 수료

거리와 공공 공간에서 작품을 발표하며, 공간과 장소를 매개하는 다양한 기억을 소재로 작업하는 거리예술가 노제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의 기억을 눈에 보이는 공간으로 전환하고, 도시의 공간 위에 시적인 상상을 덧입히는 작업을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2011년 극단 몸꼴의 배우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비언어 신체극이라는 장르에 매료돼 입단했고, 이후 몸꼴이 극장뿐 아니라 거리에서도 공연한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골목, 광장에서 창작과 공연을 이어가며 다양한 환경과 장소성을 기반으로 관객을 만났고, 열린 거리가 지닌 해방감과 현장감의 매력에 이끌려 지금까지 거리예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새로운 동료들과 아이모멘트를 창단했습니다. 이전부터 품고 있던 창작과 실험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현재는 아이모멘트에서 연출과 퍼포머로 활동하며 공공 공간 예술 작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팬데믹으로 공연이 모두 멈췄던 시기, ‘과연 나는 예술가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은 매일 밤 저를 찾아왔죠. 당시 새벽 물류 배송 일을 하던 중 우연히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강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물류 창고와 아파트 복도를 뛰어다니는 모습에서 작품의 주제가 떠올랐고, 그날의 강렬한 미장센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작품을 만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과 이야기가 곧 작품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 준비를 해야겠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거리극 〈쉽표〉를 완성했고, 다양한 거리예술축제에서 관객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에게 예술은 일상에서 우연히 주제와 이야기를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술이 저를 이끌기도 하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불꽃이 저를 자극하고 움직이게 하는 분명한 동기가 되는 순간, 저의 예술은 시작됩니다.

아이모멘트는 2022년부터 ‘도시 시리즈’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도시 시리즈는 관객과 공연자가 함께 공간을 유영하며 원경과 차경, 틈새 보기, 관찰 등 요소를 활용해 익숙한 장소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도시 공간을 소유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작업입니다. 대표작은 2024년 서울문화재단 거리예술창작지원을 통해 초연한 〈잉여의 도시〉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나머지의 것들, 낙오된, 도시의 가장자리를 지키던 존재들이 살아가는 낯선 도시를 상상하며 미지의 도시를 탐험하는 이동형 공연입니다. 서울 서계동 일대의 골목과 주거 지역, 잉여 공간, 틈, 가장자리 등을 무대로 삼아 도시의 공공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고, 도시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물과 장소를 예술적 관점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공공 공간이라고 생각해온 장소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질문하고, 쉽게 놓치거나 밀려난 존재들은 어떤 장소에 머무르게 되는지를 탐구합니다. 쓸모를 잃은 사물을

새로운 생태로 재해석하며 인간을 넘어 비인간 존재와의 공존과 돌봄의 감각을 확장하는 〈잉여의 도시〉는 서울 초연 이후 수원·평택·김포 등 다양한 지역에서 공연했으며, 올해 서울거리예술축제 선정작으로 9월 관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영감을 얻기 위해 많이 걷습니다. 공공 공간 예술은 직접 보고 걸으며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저를 강하게 이끄는 공간을 만나면 그곳을 자주 찾아가 오래 머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일 때까지, 공간과 사물이 제게 말을 걸어올 때까지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혼자 걸으며 새로운 장소와 낯선 이야기를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도시 아키비스트와 함께 리서치를 진행하거나 아이모멘트 동료들과 도시를 산책하면서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리서치와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한 작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싼 여러 담론과 결핍, 소외, 배제되고 폐기되는 것들, 그리고 그사에 여전히 존재하는 또 다른 세상을 작품의 재료로 삼고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나 지도에서 사라진 공간을 거닐며 마주하는 다



양한 순간이 작업의 중요한 영감이 됩니다.

〈쉽표〉©GoGuMa

면 속에서 상징을 발견하게 하는 연출 방식은 제가 지향하는 작업 방법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안드레이 타르콥스키(Andrei Tarkovsky) 감독의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그중 〈스토커〉는 아이모멘트의 〈파타모르가나〉, 〈잉여의 도시〉에 많은 영감을 준 작품이며, 일부 장면에 오마주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1979년 개봉한 〈스토커〉는 공상과학적 설정을 바탕으로 하지만 철학적 사유에 집중하는 작품입니다. 폐허와 모래로 뒤덮인 공간, 흑백과 컬러의 전환, 롱테이크 등 영화 속 강렬한 미장센은 영화를 본 다기보다 공간을 직접 체험하는 감각을 느끼게 했습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물 이미지와 폐기물로 가득한 장소, 인물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은 단순한 사물이나 공간이 아니라 욕망과 두려움, 믿음을 마주하게 하는 중요한 메타포로 작동합니다. 2022년 처음 이 영화를 본 이후 도시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가는 서사 구조와 장소와 사물을 통해 다양한 사유를 끌어내는 방식, 그리고 몽타주를 활용해 흩어진 장

다. 또한 공공 공간에서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재현하기보다 관객이 현실과 직접 접촉하며 사유하도록 만드는 방식 역시 현재 아이모멘트 작업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데이터 기술과 미디어 플랫폼 속에서 거리예술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공공 공간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시의 질서 속에서 소비되고 통제되는 ‘몸’을 주제로 한 작업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AI 기술을 접목해 도시를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해석하는 공공 공간 예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AI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환경 속에서 신체가 데이터화되는 현실에 질문을 던지고, 몸에 대한 새로운 사유와 담론을 만들어내는 공공공간예술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이성직

공연

@gamjapia

2026 서울거리예술축제 참여 예정

2022 예술창작활동지원 다원 선정

2022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창작지원 선정

2020 거리예술NEXT 수료

공연 만드는 이성직입니다. ‘감자피아’라는 단체로도 활동합니다.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라는 낡은 극장을 동료들과 운영하고 있어요. 제 공연에는 희곡이 잘 없고요, 또 훈련된 배우도 출연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대신 공연의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존재를 찾고, 그들과 같이 작업하는 방식을 좋아해요. 가장 작업을 오래 한 배우는 80대의 시민 배우분이세요. 저는 손에 잡히는 걸 신뢰하고, 일상적인 걸 (집착할 정도로) 좋아해요. 시민들과 같이 감자를 심고, 이를 기록하는 과정을 공연이라 우겨봤고요.(<감자전 www.gamjajeons.com>²⁰²²) 극장에 집박쥐의 집을 설치하고, 극장이 박쥐를 기다릴 수 있는 생태적 공간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하는 공연을 만들기도 했어요.(<집박쥐집>²⁰²⁵) 그리고 그간 박쥐에 대해 이어온 작업을 거리예술의 형태로 연결시키는 시도를 최근 하고 있어요. 2026 서울거리예술축제에 〈~에서 뽀 맛고, 한강에서 박쥐 놀이기> 작업으로 참여합니다. 협오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박쥐와 연결시켜보고, 시민과의 워크숍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한강공원을 돌아다니며 박쥐에 관한 잡담을 듣고, 박쥐를 따라하는 사람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연입니다. 박쥐와 산책하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싶거나 시간이 된다면 놀러오세요. 9월 19일과 20일 뚝섬한강공원에서 진행합니다. 그간 공연이라고 규정된 것들을 열심히 신경 쓰지 않으려 하고, 지금 이곳에서, 내가 가능한 적당한 규모와 형식의 공연을 찾으려 노력 중입니다. 아, 그리고 먹는 걸 좋아하고 또 신뢰해서, 공연에서 자주 음식을 만들거나, 먹기도 해요.

대학교에서 연극 동아리를 했고,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공연을 만들고 있어요. 무언가를 기획하고, 그걸 공연이란 문법으로 옮겨내는 과정이 늘 재밌는 것 같아요.

최근 참여한 작업 중 앞으로의 창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작업을 소개하고 싶어요. 올해 상반기 ‘안전 연극제’라는 축제의 〈소거된 몸

요. 그들의 게재되지 않은 희곡은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요. 이 희곡을 공연한 것은 제게 예술가로서 ‘어떻게 이 생태계에서 작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실존적인 고민이 들게 만든 작업이었는데요. 짧은 희곡 안에 저마다의 생이 폭 담겨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 희곡이 어떤 이유로든 게재되지 않는 경험은 생각보다 큰 부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한창 작업을 시작하는 예술가에게 부정적인 경험은 기본값이지만, 그런 와중에 자신의 작품이 게재되지 않아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니 동료 창작자로서 좀 아득해진 것 같아요. 6명만의 예외적인 일이라기엔 그렇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고요. 더불어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장해온 웹진 [연극in]이 복간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연극in]이나 제가 하는 작업은 생태계의 지표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적으론 작지만, 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생물 같은 존재요. ‘K-컬처’, ‘브랜딩’과 같은 단어가 범람하는 무한 자기 상품화 시대에 다양한 모양의 예술이 어떻게 제 모양을 보존하며 생존할 수 있을지 고민이 들어요.

깃: 연극in 미계제 희곡 작가 페스티벌)이라는 작품에 기획자로 참여했어요. [연극in]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한, 지금은 잠정 휴간된 웹진인데요. 다양한 연극인의 생생한 시간이 담긴 웹진이에요. 그곳에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을 받아 만들어진 작품에 관한 리뷰나, 공공 기금 없이 제작된 작품에 관한 논평도 있고요. 연극 현장에 몸담은 창작자의 생생한 인터뷰와, 이런저런 실험 중인 작가들의 짧은 희곡이 모여 있었어요. [연극in]에는 ‘이게 좋은 연극이지’ 하는 권위적인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말 다양한 연극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고, 저 역시 그 생태계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아 안정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일반 시민에게 가닿지 않는다는 등 여러 이유로 잠정 휴간됐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짧은 희곡을 [연극in]에 게재하고 싶어 희곡 공모에 참여해 당선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곡이 정상적으로 게재되지 않은 6명의 작가와 함께 공연을 만들었어



주로 일상을 살며 흠칫하는 순간들을 작품

〈아파야 낫는다 건강백세!〉©두산아트센터

미야케 쇼Sho Miyake라는 꽤 젊은 일본 영화감

으로 치환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읽은 책에

독을 요즘 제일 좋아합니다. <너의 눈을 들

서 ‘이노더스’inodus’라는 개념을 봤는데요. ‘exodus’(탈출)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접두사인 ex-를 안쪽으로 향하는 in-으로 바꾼 단어였어요. 이 단어가 흥미로운 건 지금 제 작업을 설명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 작업은 바깥으로 뻗어 나가기보다 집요하게 일상적으로, 작고 깊게 파고드는 일이에요. 저한테는 그게 일종의 ‘확장’인데, 제 작업을 보시고 주변에서는 ‘다음이 무엇이나? 더 큰 곳에서 하는 걸 보고싶다’는 반응을 심심찮게 들었어요. 저는 이미 나름대로 진행하며 확장하고 있는데, 다만 그게 더 바깥으로 커지지 않는 방식이라 설명하기가 애매해서 늘 답답했어요. 그 점에서 ‘이노더스’라는 말이 약간 답답함을 해소해준 것 같아요. 제 식대로 해석한다면 안쪽으로의 탈출 혹은 확장이랄까요. 저는 일상을 살며 치이는 작은 것들을 지극하게 들여다보며 영감을 끌어내는 것 같아요.

여다보면>²⁰²², <새벽의 모든>²⁰²⁴, <와일드 투어>²⁰¹⁸와 같은 작품을 연출했는데요. 창작에 있어 나의 ‘적당함’은 무엇일지 늘 고민하는데, 그에 대한 꽤 근사한 대답을 본 것 같아서 좋았어요.

몇 달 동안 지속되는 해외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우연찮게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한 1년 정도 지속되는 긴 축제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시적으로 반짝하고 사라지는 축제가 아니라 ‘이거 왜 안 끝나?’하는 지루한, 영원할 것만 같은 착각이 드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싶어요. 상상해보면 매주 다른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있는 축제이고, 그 라인업이 공개될 때 2~3년치가 한꺼번에 공개되면 어떨까 싶었어요. 일시적인 축제가 아니라 그냥 축제로랑 진득하게 같이 사는 그런 감각이 실현되면 어떨까 엄청 궁금해요.

새로운 실험에서 희망을 보다

중구문화재단 왕소영 사장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협력관

무대 위에서 노래하던 예술가였다. 박수받던 성악가는 어느 날 무대 뒤로 들어갔다. 공연을 알리고, 관객을 모으고, 공간을 운영하는 자리다. 그렇게 정동극장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장애예술 현장을 거쳐 이제는 중구문화재단으로 온 왕소영 사장의 이야기다.

그는 노래하는 사람이기보다 누군가의 예술을 위해 무대를 열어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맞을까. 충무아트센터 로비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 아이들이 함

께 악기를 배우는 꿈의 오케스트라, 장애예술인이 독립적인 예술가로 설 수 있는 기회, 중구의 오래된 장소를 새롭게 읽는 역사 콘텐츠까지. 그가 말하는 중구문화재단의 방향은 거창한 선언보다 한 사람의 일상에 남는 문화의 순간에 닿아 있다.

“중구민이 ‘그 사장이 있을 때 참 좋았다’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인터뷰 말미에 나온 이 말은, 사실 이날 대화를 꿰뚫는 문장이다. 성과나 숫자보다 자주 언급된 말은 ‘구민’이다. 좋은 공연을 선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문화재단이라면 문화가 주민의 일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은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잠자던 감각을 깨우는 경험이어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다.

문화, 작지만 지속되는 경험

그는 성악가 출신이다. 무대에 서고 노래하던 그는 2000년 12월 정동극장에 입사했다. 당시 정동극장은 전통상설공연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알리고 여행상품과 연결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는 일본 여행사와 공연 패키지 상품을 만들고,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직접 뛰었다. “무대에 서던 사람이 행정을 몰랐으니 매일 밤을 새웠다”는 말에 당시의 긴장감이 묻어난다.

2004년에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설립 초기 멤버로 합류했다.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이전과 맞물려 공연장, 문화상품점, 카페, 주차장까지 문화시설 운영의 전반을 경험했다. 박물관이 닫힌 뒤에도 일을 끝내지 못해 직원들과 점질방에서 회의를 이어가던 날도 있었다. 그는 그때 문화예술은 시대 흐름과 함께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과거에는 조심스럽던 굵즈가 이제는 박물관의 대표 콘텐츠가 된 것처럼, 예술행정도 시대의 감각을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그의 이력에서 장애예술을 빼놓을 수 없다. 2011년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페스티벌을 접한 뒤 발달장애 예술인 지원에 관심을 가졌다. 처음에는 ‘이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마음만으로는 지속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단체를 만들고, 사단





범인을 세우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했다. 혼자서 사업 계획·회계·인사·총무를 직접 챙겼고, 장애예술인이 일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갔다. 그는 이 경험이 중구문화재단을 이끄는 데 큰 자산이 됐다고 고백한다. 예술가로서 무대를 알고, 공공기관에서 복합문화시설 운영을 익혔으며, 단체 운영을 통해 행정의 바닥을 배웠기 때문이다. 중구문화재단은 공연, 전시, 도서관, 생활문화 사업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충무아트센터는 뮤지컬 공연장으로 독보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 성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중구문화재단의 현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중구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 규모가 작고, 기획 예산도 넉넉하지 않다. 과거처럼 대형 창작 뮤지컬을 자체 제작하거나 대규모 공동 기획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그가 택한 방식은 ‘작지만 지속되는 사업’이다. 큰돈을 쓰는 한 번의 이벤트

보다, 주민이 반복해서 만날 수 있는 문화 경험을 만드는 쪽에 무게를 둔다. “대국민 서비스도 중요하고, 퀄리티 있는 공연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역민을 위한 역할이 중요해요.” 그 고민에서 시작한 사업이 ‘중구 수요음악회’다. 충무아트센터 로비에서 첫째·셋째 주 수요일에 음악회를 연다. 대극장의 조명도, 거대한 제작비도 없다. 대신 그곳에는 무대가 필요한 청년 음악가가 있고, 자신의 연주를 들려주고 싶은 장애예술인이 있고, 수영 강습을 마친 뒤 잠시 음악앞에 앉은 동네 어르신이 있다. 그는 이 장면을 중요하게 여긴다. 누군가에게는 짧은 음악회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애 첫 무대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관객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11월까지 일정이 모두 차 있을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공연을 보러 일부러 찾아오는 주민도 생겼고, 스포츠센터 이용 뒤 자연스럽게 음악회를 찾는 고정 관

객도 생겼다. “예산이 없어도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죠.” 이 말은 작지만 정확했다. 지역문화재단의 힘은 언제나 큰 무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로비 한쪽에 놓인 의자 몇 개와 피아노 한 대, 그리고 그 앞에 잠시 멈춰 앉은 주민의 얼굴에서 시작된다. 도서관도 그가 주목하는 자산이다. 중구문화재단은 지역 곳곳의 도서관에서 작가 강연, 인문학 프로그램, 작은 음악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 충무아트센터의 공간을 더 적극적으로 연결하려 한다. 지하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아카데미, 중구의 역사와 장소성을 살린 인문학 강좌, 예술의전당 영상화 공연을 활용한 시네마 프로그램 등을 구상 중이다. 그는 “공연 영상을 그냥 틀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사전 해설과 짧은 실연이 곁들여질 때 관객은 작품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민에게 오래 남는 경험을 위해

중구의 특성도 그에게는 중요한 콘텐츠다. 명동·신당·광희문·다산성곽길·이순신 장군 생가터 등 그곳에는 역사와 관광, 생활문화가 겹쳐 있다. 그는 이 자원을 하나의 문화적 이야기로 엮고자 한다. 국립박물관 장 등을 지낸 이들이 참여하는 역사 스토리 강좌, 광희문과 성곽길을 따라가는 답사 프로그램, 명동과 신당을 연결하는 외국인 대상 문화관광 상품도 고민 중이다. 주민에게는 자신이 사는 곳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고, 관광객에게는 중구를 소비의 공간 너머 문화의 장소로 경험하게 하는 길이다. 특히 이순신 장군 생가터가 중구에 있다는 점을 활용한 브랜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양여대 산업디자인과와 협력해 이순신을 주제로 한 굿즈 개발을 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VR·XR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전시도 검토하고 있다. 통영과 아산의 이순신이 바다와 거북선의 이미지라면, 중구의 이순신은 서울 한복판에서 새롭게 만나는 도시형 역사 콘텐츠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장애예술과 다양성도 재단 운영에 담아내려 한다. 취

임 후 중구장애인복지관을 찾은 그는 지역 안에 이미 수준 높은 장애예술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으로 재단은 이 활동을 더 잘 보이게 하고, 무대와 전시, 굿즈 제작, 나아가 일자리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단다. 포용은 시혜가 아니라 예술가로 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그는 예술성, 공공성, 책임경영이 따로 갈 수 없다고 말한다. 좋은 취지라도 운영 원칙이 무너지면 지속될 수 없고, 효율만 앞세우면 문화재단의 존재 이유가 흐려진다. 결국 지역문화재단은 주민에게 오래 남는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그는 대학에서 강의하던 시절의 기억을 들려줬다. 교양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모차르트 영화를 보여주고, 음악을 듣게 하고, 기말고사에는 ‘오 솔레미오’를 부르게 했다. 시간이 지나도 학생들은 그 수업을 기억했다. 어떤 학생은 그 노래 한 곡이 사회생활에서 뜻밖의 힘이 됐다고 연락해왔다. 그는 그것을 ‘임팩트’라고 불렀다. “어떤 순간이 딱 마음에 남으면 오래 기억되거든요. 그 경험 하나로도 삶이 풍부해질 수 있어요.” 어쩌면 그가 중구문화재단에서 만들고 싶은 것도 그런 순간일지 모른다.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음악, 아이가 처음 잡아본 악기, 어르신이 공연을 보고 돌아가는 길의 미소, 외국인이 명동 너머 중구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경험. 그것들이 쌓이면 재단은 단순 기관이 아니라 기억이 된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던 가수가 이제 다른 이들의 무대를 지원한다. 그 무대가 대극장일 때도 있고, 도서관 한 편일 때도 있고, 충무아트센터 로비일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누군가의 마음이 조금은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그 사장이 있을 때 참 좋았다.” 왕소영 사장이 바라는 기억은 거창하지 않다. 하지만 기초문화재단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성과는 어쩌면 바로 그런 말일지도 모른다. 중구의 일상에 작지만 선명한 문화의 순간을 남기는 것. 그의 새 실험은 그 기억을 향해 천천히 나아간다.

여름이 너무 싫다. 여름엔 온갖 우울한 일들이 일어난다. 봄에 새롭게 시작한 일도 그다지 진척이 보이지 않고, 지지부진하다. 무엇보다 덥다. 더워서 그런가, 평소 같으면 그럴 수 있다며 이해할 수 있던 일도 ‘그럴 수는 없는’ 일이 되고는 한다. 도대체가 끝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상태가 무덥고도 축축한 날씨 속에서 지속된다. 여름이 지나가는 과정이다. 어쨌든 싫다.

이번 8월호는 왜인지 여름호임을 미묘히 계속 티 내는 달이었다.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다는 말이다. 생각한 아이tem과는 다른 아이tem을 발굴해야 했고, 생각한 분이 섭외되지 않기도 했다. 월간지는 쉽지 않다는 걸 여실히 깨달은 초여름이었다. 연속되는 좌절과 불안함이 덮쳐 오던 때에 요가를 시작했다. 6시에 퇴근하고 집에 도착한 7시부터 잠에 드는 12시까지 무언가를 해야겠는데, 늘 그렇듯 인스타그램 릴스만 보고 있기엔 시간이 아까웠다. 서울의 현대인답게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 생긴 요가원에 등록하고, 50분씩 수련하고 있다. 선생님은 당연하게 취하는 자세를 힐끗힐끗 보며 서둘게 따라 하다 보면 절반 정도 시간이 지나 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브릿지’ 자세를 하고 나면, 제일 좋아하는 ‘사바아사나’ 자세 시간이 돌아온다. 온몸의 힘을 풀고 드러눕는다. 자칫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면, 그를 알아챈 것처럼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의식을 데려오자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모르겠다. ‘지금 여기’는 어떤 곳이며, 어떤 상태여야 할까.

터벅터벅 집에 돌아가는 길에 들린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읽었다. 『나는 좌절의 스펙트리스트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진 백혜선 피아니스트의 글이다. 저자 소개부터 남다르다. ‘한국이 낳은 우리 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라니. 나 같은 범인이 읽어도 공감할까라는 걱정과 다르게 한 대목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잠시 숨을 돌린 선생이 말했다. “너무 아름답네. 너무나 정제되어 있고. (….) 그렇지만 바로 그게 문제야. 자네의 가장 못생긴 발부터 앞으로 내밀어야 하네. 매끈한 발을 내미는 길로는 모든 사람과 똑같은 수밖에 없어.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니까. 자네의 가장 못생긴 발이야말로 자네가 가진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구석을 드러내는 것이라네.”

지금 여기, 내가 가진 가장 못생긴 발을 내미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도대체 선생님들은 왜 이리 어려운 말씀만 골라서 하실까. 아니 그건 그렇고,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할까’. 참으로 이상한 순간이었다. 정말로 정글정글한 여름처럼 말이다.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거기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이 못생기고 불편한 순간을 버텨야 한다. 알고 있다. 버티고 버티다 보면 아마 순식간에 가을과 겨울이 지나, 한해가 지나 있겠지. 어쨌든 버텨야 지나갈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해서든 여러 고마운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8월호 마감을 마치고 있듯,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어서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나혜린 서울문화재단 커뮤니케이션팀

[문화+서울]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노들섬 대학로예술극장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양천/용산/은평 서울문화재단 본관/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장애인예술창작센터 신당창작아카데미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유종아트센터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Seoul Artist Academy

서울문화재단 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7월

30일(목)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원천의 원천 I 조예은 작가 X 광예진 연출가	●
---------------------	------------------------------	---

8월

5일(수) 청년예술청	작가는 무엇을 어떻게 쓰는가 문지윤 큐레이터	◆
----------------	-----------------------------	---

7일(금) 청년예술청	국공립 기관에서의 전시기획 홍이지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
----------------	------------------------------------	---

7일(금)~9월 4일(금)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스토리 워크숍 이은희 영화감독	●
-----------------------------	---------------------	---

7일(금)~11월 27일(금) 서울연극창작센터	장막극 창작 트레이닝 이미경 작가	●
------------------------------	-----------------------	---

11일(화) 청년예술청	백스테이지 라이브 이도엽 무대기술 전문팀 결작 대표	◆
-----------------	---------------------------------	---

14일(금) 청년예술청	연출가의 타임라인 윤혜숙 연출가	◆
-----------------	----------------------	---

21일(금) 청년예술청	“널 위한 문화예술”이 제안하는 청년예술가가 관객에게 다가가는 법 한지혜 널 위한 문화예술 콘텐츠팀 팀장	◆
-----------------	--	---

24일(월)~11월 9일(월) 서울연극창작센터	드라마투르기적 사고와 실천: 창작 현장에서의 드라마투르그 역할과 실천의 이해 박다솔 평론가	●
------------------------------	---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 재단프로그램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참고)

● 서울예술인지원센터 MEET-UP
◆ 청년예술청 STEP-UP
● 서울연극창작센터 PLAY-UP

26일(수) 청년예술청	창작보다 괴로운 프로덕션 글쓰기 강보름 프로젝트 레디메이드 연출가	◆
-----------------	---	---

27일(목)~9월 17일(목) 서울예술인지원센터	몸, 감각하기 이윤정 안무가	●
-------------------------------	--------------------	---

28일(금) 청년예술청	전시 프로세스: 공간 기획 부터 전시 운영까지(가제) 후니다 김 작가	◆
-----------------	--	---

9월

1일(화)~22일(화)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사운드스케이프 김준 작가	●
---------------------------	------------------	---

2일(수) 청년예술청	막연한 AI 시대, 예술가는 무엇을 감각하는가 양민하 미디어아티스트	◆
----------------	---	---

9월 중 청년예술청	희곡 읽기 워크숍 배해률 극작가	◆
---------------	----------------------	---

9월 중 청년예술청	예술과 기술 워크숍 양민하 미디어아티스트	◆
---------------	---------------------------	---

9월 중 청년예술청	드라마투르기 워크숍 장윤정 드라마투르그	◆
---------------	--------------------------	---

9월 중 청년예술청	비평 워크숍 리타 미술평론가	◆
---------------	--------------------	---

10월

7일(수)~28일(수)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제너러티브 아트 서효정 작가	●
---------------------------	--------------------	---

10월 중 청년예술청	인사이트 토크 연사자 추후 공개	◆
----------------	----------------------	---

11월

11월 중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원천의 원천 II 조예은 연출가	●
--------------------	----------------------	---

